

정책연구
2017-01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

오선정

목 차

| | |
|-------------------------------------|----|
| 요 약 | i |
| 제1장 서 론 | 1 |
| 제2장 사회자본 관련 이론 및 통계 | 5 |
| 제1절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징 | 5 |
| 1. 사회자본의 개념 | 5 |
| 2. 사회자본의 특징 | 8 |
| 3. 요 약 | 9 |
| 제2절 사회자본의 수준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 | 11 |
| 1. 사회자본의 수준 | 11 |
| 2.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 15 |
| 제3절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 19 |
| 1. 주요 선행연구 결과 | 19 |
| 2.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 25 |
| 제4절 소 결 | 27 |
| 제3장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 29 |
| 제1절 선행연구 | 30 |
| 1. 비행의 개념 | 30 |
| 2.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 31 |
| 제2절 연구방법 | 35 |
| 1. 분석방법 | 35 |

| | |
|---|----|
| 2. 분석자료 및 변수 측정방법 | 36 |
| 3. 기초통계 | 43 |
| 제3절 분석결과 | 45 |
| 1. 학생 개개인의 사회인식 수준 및 사회자본과 비행 간의 관계 .. | 45 |
| 2.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47 |
| 제4절 소 결 | 50 |
| | |
| 제4장 청소년기 비행과 노동시장 성과 | 53 |
| 제1절 선행연구 | 54 |
| 제2절 분석방법 | 56 |
| 1. 자 료 | 56 |
| 2. 실증분석 전략 | 56 |
| 제3절 분석결과 | 61 |
| 1. 기초통계 | 62 |
| 2. 비행과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 | 64 |
| 3. 비행이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PSM 분석 | 68 |
| 4.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상호관계 | 70 |
| 제4절 소 결 | 72 |
| | |
| 제5장 결 론 | 74 |
| | |
| 참고문헌 | 78 |
| | |
| 부 표 | 87 |

표 목 차

| | |
|--|----|
| <표 2-1> 사회자본의 개념, 구성요소 및 특징 | 10 |
| <표 2-2> 한국 및 일부 국가의 타인 신뢰자 비율(1981~2014) | 12 |
| <표 2-3> OECD 회원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2012~2016) | 13 |
| <표 2-4> OECD 회원국의 학력별 타인 신뢰수준의 차이 | 16 |
| <표 2-5> 학력 및 노동시장 지위별 신뢰수준의 차이 | 18 |
| <표 2-6>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 26 |
| | |
| <표 3-1>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사회자본 관련 설문 | 38 |
| <표 3-2> 개인의 사회인식 수준 및 사회자본 측정방법 | 40 |
| <표 3-3> 비행 세부내용 및 학생 비행경험 여부 | 41 |
| <표 3-4> 비행 측정방법 | 43 |
| <표 3-5> 제2차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2 학생(평균 13.9세)의 기초통계 | 44 |
| <표 3-6> 2차년도(중2) 단년도 분석: 회귀분석 추정치 (종속변수: 비행경험 개수) | 46 |
| <표 3-7> 2차년도(중2) 단년도 분석: 로짓모형 한계효과 (종속변수: 비행 여부) | 46 |
| <표 3-8> 중2 시절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중3~고3 비행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추정치 | 48 |
| <표 3-9> 중2 시절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중3~고3 비행에 미치는 영향: 로짓모형 한계효과 | 49 |
| | |
| <표 4-1> 비행 변수 구성 | 57 |
| <표 4-2> 분석표본의 기초통계량 | 59 |
| <표 4-3>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개인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의 | |

| | |
|--|----|
| 차이 | 63 |
| <표 4-4> 중학교 시기 비행과 초기 교육수준의 관계 | 66 |
| <표 4-5> 중학교 시기 비행과 중기 교육수준의 관계 | 66 |
| <표 4-6> 중학교 시기 비행과 초기 노동시장 지표의 관계 | 67 |
| <표 4-7> 중학교 시기 비행과 중기 노동시장 지표의 관계 | 67 |
| <표 4-8> 중학교 시기 비행이 교육 및 노동시장 지표에 미치는 영향 | 69 |
| <표 4-9> 타인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71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주변환경, 사회자본 및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 | 3 |
| [그림 2-1] 한국 및 일부 국가의 타인 신뢰자 비율(1981~2014) | 12 |
| [그림 2-2] OECD 회원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2012~2016) | 14 |
| [그림 3-1] 중2 학생의 사회인식 평균점수 | 39 |
| [그림 3-2] 중2 시절 경험한 비행 종류의 개수 | 42 |

요 약

사회적자본(이하 사회자본)이란 물질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구분되는 제3의 자본으로 호혜의 규범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협력적 네트워크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사회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매우 낮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사회자본 영역에서 한국은 조사에 포함된 30개 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했다(정해식 외, 2016).

이처럼 낮은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 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청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부모의 재력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하여 크게 결정되는 주변환경이 자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이하며 이러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 최종학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족환경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mechanism)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변 인적구성원(이하 주변인)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선택이다. 부모가 선택한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웃이 결정되며, 선택한 거주지에 따라 자녀의 학군이 정해져 이는 주변에 어떤 학교친구가 있을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변인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성격, 태도, 학업성취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주변인의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 및 주변환경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대체적으로 정비례하는 사회자본의 수준은 계층별 노동시장 성과가 상이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주변인의 특성을 포함하는 주변환경은 사회자본의 주된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개인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환경은 사회자본을 매개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하여 측정 자체가 어려운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깊은 관계가 있는 주변인의 특성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필요한 주변인의 특성(A)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패널자료는 아직 국내에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변인의 특성(A)이 청소년의 비행(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비행(B)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변인의 특성(A)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다. 물론 주변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청소년의 비행은 그 중 극히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청소년의 비행이기 때문에 이를 주변인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주된 매개로 설정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1. 사회자본 관련 이론 및 통계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의 학문적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통계분석을 통해 국내 사회자본 수준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며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자본의 수준을 살펴본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회자본은 개인의 측면에서 사회적 구조 및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Portes, 1998), 사회의 측면에서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물질적 자본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공공재로 배타성이 없고(Putnam, 1993),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 유지되고 재생산되며(Bourdieu, 1986),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자본의 특징은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자본의 수준은 높지 않다.

World Value Survey(WVS)에 따르면 2010~2014년 기준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26%로 스웨덴의 6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의 36%나 미국의 35%보다도 상당히 낮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이나 일본에 비해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1980년대 초반에는 약 36%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약 26%로 일본보다 10%p가량 낮아졌다.

이밖에도 OECD의 Better Life Index(BLI)에 따르면 2016년(2014~2016년 평균) 기준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76%로 기타 OECD 회원국 평균인 89%보다 13%p 낮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BLI가 조사된 2012~2016년 내내 OECD 타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자본의 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과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또한, 다수의 해외연구에 따르면 신뢰 수준 등의 사회자본은 대체로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해외연구는 인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거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 및 취업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장에서 국내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해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노동시장 성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2.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제3장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자본은 학교친구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및 다문화 수용도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학교친구의 인식이 청소년 A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causation)를 밝히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A 자신도 친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관계(reflection) 때문에 학교친구의 사회자본을 비롯한 성향이 청소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중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사회자본 수준이 미래(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 A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학교단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도 내 학교 간의 사회자본 수준의 편차를 이용하여 과거의 사회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중학교 시기 학교에 사회인식 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거나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을수록 고등학생 청소년의 비행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동급생 중에 높은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p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비행확률이 0.32~0.33%p 낮아진다. 이는 비행 여부 변수의 표준편차 한 단위(0.24) 이상의 크기로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또한 청소년의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된다. 이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여자 고등학생이 비행을 할 확률은 19~27%p 낮고, 어머니가 대졸 학력이면 비행을 할 확률이 4~6%p 낮다.

이 결과는 한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높은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가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전체의 6%에 불과한바, 이처럼 상당히 낮은 중학생의 사회인식 수준을 교육정책 등을 통하여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나 지역사회 등 주변환경이 아닌 가족환경이다. 하지만 공공정책이 학생의 가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가족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거주지에 따라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자본의 필수요소는 구성원 간의 신뢰이며 신뢰는 교류(네트워크)가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회구성원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자본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 및 교류의 중요성과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청소년기 비행과 노동시장 성과

제4장은 청소년기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전체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나, 현재 가용한 패널조사에서 주변 인적자본의 특성 관련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사회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바, 청소년기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데이터를 이용한다. 노동패널 본 조사는 비행 관련 설문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2006년에 실시한 제9차 패널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는 15~35세 청년의 중·고등학교 비행에 관한 상세한 설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에 실시한 제9차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비행이 초기(18~35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15년에 실시한 제18차 조사를 바탕으로 제9차 청년층 부가조사 참여자의 청소년기 비행이 9년 후(27~44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성향점수매칭(PSM)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비행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질 확률을 14.1%p 더 높이는 반면,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확률을 4.2%p,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확률을 9.8%p 더 낮춘다. 교육수준은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고 정규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행이 초기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행은 초기 노동시장의 상용직 여부

와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비행은 20대 후반의 취업률이나 정규직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을 5.8%p, 월평균 임금을 14.91만 원 낮춘다. 비행이 초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 비행은 30대 후반의 취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용직일 확률을 8.3%p, 정규직일 확률을 8.2%p 낮추고 월평균 임금도 16.79만 원 낮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경험한 사람이 향후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낮다면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비행이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기와 중기의 분석표본이 달라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기 노동시장 지표 분석 시에 청소년기 비행은 정규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중기에는 정규직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정착할 시기의 고용의 질에 청소년기 비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의 비행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비행이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비행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주변 인적구성원

의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이러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징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에 매개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징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이 청소년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자본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중학교 시절 주변 학교친구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 등 사회인식이나 가족의 배경이 고등학교 시절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비행경험은 개인의 최종학력과 20대 후반 및 30대 후반에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 정규직일 확률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을 매개로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적이거나 예상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청소년들의 사회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비행이 15년 또는 25년 후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비행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매개 중의 하나일 뿐이다. 사회자본은 비행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신뢰, 공동체 의식 등 사회자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의 일면만을 보여준다. 또한 연결적 사회자본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어떤 일부계층의 주변 인적구성원이 지나치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학교, 주거지역, 지역사회 등의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게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물질적 자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 사회자본이라는 학문적 개념을 노동시장 연구에 도입하

었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자본이 신뢰 유지, 규범 준수, 개인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in(2001)에 따르면 특정 사회 구성원이 집중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려는 경향(homophily)이 존재할 때 인종 불평등과 같은 계층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망을 교류하고 규범 등을 공유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회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활용할수록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 즉 현재 일부 사회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관계망에 그러한 자원이 부족한 구성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위집단 이익의 희생으로 기타 구성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은 전체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바 없다.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자본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삶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정책만이 아니라 교육정책, 지역사회정책, 심지어 직업훈련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환경이 제한되었거나 주변 인적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사회구성원에게는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나 공공고용 서비스

스(public employment service)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 향후 사회자본 양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제 1 장 서 론

사회적자본(이하 사회자본)이란 물질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구분되는 제 3의 자본으로 호혜의 규범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협력적 네트워크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사회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매우 낮다.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타인 신뢰자)의 비율은 26%로 스웨덴의 6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의 36%나 미국의 35%보다도 상당히 낮다(2010~2014년 기준).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1980년대 초반에는 약 36%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약 26%로 일본보다 10%p가량 낮아졌다. 또한 OECD의 Better Life Index에서도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존재하는 사람(사회지원망 보유자)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76%로 기타 OECD 회원국 평균인 89%보다 13%p 낮아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도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2014~2016년 평균 기준).

국내에서 개발된 사회통합지수의 사회자본 영역은 '사회구성원의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이해와 관용, 귀속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이타적 행위 수행, 선거 참여 등의 객관적 행위 수준으로 표출되는 시민 역량(정해식 외, 2016: 77)으로 정의된다. 한국의 사회자본 영역 순위는 조사에 포함된 30개 OECD 국가 중 1995~2000년에 23위였으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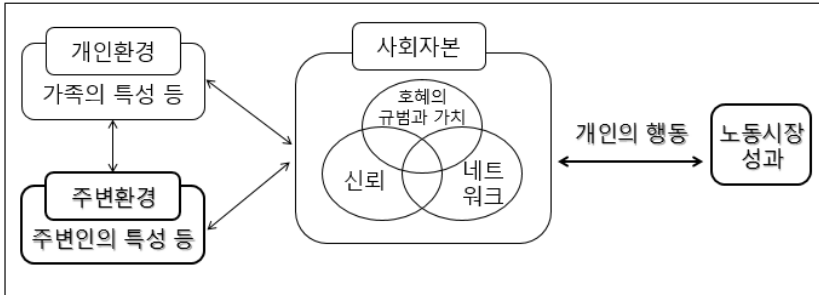
2015년에 한 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정해식 외, 2016).

이처럼 낮은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자본이 개인과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영향이다.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취업경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강유진, 2007; 김성훈, 2005; 김영철, 2010;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최준호, 2007).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최근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청년층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부모의 재력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하여 크게 결정되는 주변환경이 자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이하며 이러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 최종학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가족환경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mechanism)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변 인적구성원(이하 주변인)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선택한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웃이 결정되며, 선택한 거주지에 따라 자녀의 학군이 정해져 이는 주변에 어떤 학교친구가 있을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변인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의 성격, 태도, 학업성취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주변인의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 및 주변환경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대체적으로 정비례하는 사회자본의 수준은 계층별 노동시장 성과가 상이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주변인의 특성을 포함하는 주변환경

[그림 1-1] 주변환경, 사회자본 및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



자료: 필자 작성.

은 사회자본의 주된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개인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환경은 사회자본을 매개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사회자본을 매개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단순 도식화한다. 가족을 포함하는 개인환경은 주변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림 1-1]의 화살표가 양방향인 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환경, 주변환경, 사회자본 및 노동시장 성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하여 측정 자체가 어려운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깊은 관계가 있는 주변인의 특성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즉 [그림 1-1]의 도식에서 진화한 강조된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는 사회자본을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보는 순환성(circularity)의 문제를 갖는다(남궁근, 2007).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과거의 사회자본 수준 또는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변인의 특성 등)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저자가 파악하기에 본 연구에서 필요한 과거 주변인의 특성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패널자료는 아직 국내에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변인의 특성(A)이 청소년의 비행(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비행(B)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변인의 특성(A)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중학교 시기) 학교친구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 및 부모의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측정된 주변인의 특성이 향후(고등학생 시기)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비행이 20대 후반 및 30대 후반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물론 주변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비행은 그 중 극히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청소년의 비행이기 때문에 이를 주변인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주된 매개로 설정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사회자본 관련 이론을 소개하고, 국내외 통계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의 수준 및 사회자본과 노동시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제3장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자료를 패널분석하여 주변인 특성을 바탕으로 측정된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장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청소년기 비행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사회자본 관련 이론 및 통계

본 장의 제1절은 사회자본의 학문적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은 국제비교를 통해 사회자본 수준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제3절은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제1절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징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적자본 또는 사회자본은 한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Adler and Kwon, 2002) 연구 분야, 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는 생산성 편익을 발생시키는 사회관계이다(Bhandari and Yasunobu, 2009). 사회자본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개인의 측면에서 사회적 구조 및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Portes, 1998), 사회의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물질적 자본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구조적 관점의 개인 단위에서 관찰하는지 혹은 관계적 관점의 사회 단위에서 관찰하는지에 따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Bhandari and Yasunobu, 2009; Nordstrom and Steier, 2015; 남궁근, 2007). 미시적 접근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에 초점을 두는데 Lin(2001)은 사회자본을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였고, Portes(1998)는 이를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Lin, 2001: 19; Portes, 1998: 6, 유석춘·장미혜, 2002: 92 재인용). 거시적 접근은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파악하는데 Putnam(1995)은 사회의 호혜성에 주목하여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utnam, 1995: 67; 유석춘·장미혜, 2002: 93 재인용).

가. 미시적 접근

개인 단위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바라본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Bourdieu, 1986: 248; 유석춘·장미혜, 2002: 19를 인용한 남궁근, 2007: 300 재인용)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자본을 경제자본 및 문화자본과 더불어 개인 단위 자산의 한 가지로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Bourdieu는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감의 기반이라고 보는 동시에(Portes, 1998이 인용한 Bourdieu, 1986 재인용) 이러한 사회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 및 문화적 자원의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Portes, 1998). 장시준(2014)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은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이다.

개인 단위의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은 외부적 단체와의 관계 및 내

부적 관계로 구분된다. 외부적 단체와의 관계(bridging ties)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정보의 흐름 측면에서 집단 내부에서 순환되는 정보보다는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정보가 더 활용성이 높고 정보의 순환도 활발하다는 측면을 강조한다(Burt, 1992).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취할 수 있는 정보적, 기회적 이익은 구성원에게 자원으로, 결과적으로 자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내부적 관계의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은 단합성 및 응집력 등 집단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익이 생성된다(Nordstrom and Steier, 2015).

이와 더불어 Lin(2001) 및 Portes(1998) 등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다. Lin(2001)의 경우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내에 내재된(embedded) 목적적 행동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이라 주장하며, 앞서 Bourdieu가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간단히 말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이들은 사회자본이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Burt(1992)는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사회자본은 개인이 소속된 네트워크의 크기 및 구성원의 자원, 그리고 개인 자신의 노력과 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남궁근, 2007).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시적 관점에서 본 사회자본은 배타성을 바탕으로 하며 그로 인하여 사회자본의 이익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된다고 여겨진다(Coleman, 1988; 남궁근, 2007).

나. 거시적 접근

Putnam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국가 등의 거시적 단위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할 대표적인 학자이다. 거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의된다(Putnam, 1995: 67, 남궁근, 2007: 300 재인용). 즉 Putnam의 정의에서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는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이다(남궁근, 2007).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 간 협력이 핵심요소로 작용하며(Putnam, 1995) 이는 곧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진다고 본다(남궁근, 2007). 또한 개인적 관점의 사회자본과는 반대로 거시적 관점의 사회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어 배타성보다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Putnam, 1993).

Putnam에 의하면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은 서로에게 정(+)적인 효과를 주며, 시민관여적 네트워크는 신뢰와 호혜적 규범을 확산 및 촉진시키고 수평적 네트워크는 협력과 긍정적 평판의 확산에 기여한다.

2. 사회자본의 특징

사회자본은 연결적(bridging) 또는 결속적(bonding)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결속적 사회자본이란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주는 사회자본이며 특수한 호혜관계를 뒷받침하고 연대의식을 결집시키는 데 유리하다(남궁근, 2007). 반면 연결적 사회자본은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자본으로, 외부 자산과 연계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데 유리하다(남궁근, 2007). 즉 연결적 사회자본은 외향적이고 포괄적이나 결속적 사회자본은 내향적이며 배타적이다(Putnam, 2000).

Granovetter(1973, 1983)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고용의 측면에 적용하여 이의 가치를, 특히 비공식 경로(informal networks)의 노동시장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Granovetter(1983)는 약한 연결(weak ties)과 강한 연결(strong ties) 중에서 특히 약한 연결의 확산이 개인 및 사회에 이익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Granovetter(1983)에 따르면 정보 흐름 측면에서 강한 연결을 가진 구성원들은 비슷한 연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보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에 반하여 약한 연결 관계는 다른 네트워크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Granovetter, 1983).

유사하게 Lin(2001)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다른 사회계층과 연결하는 것은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결속 또는 결합적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특권 계층만의 결합 또는 소외계층만의 고립은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불평등 해소에는 취약계층들만의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인종 간, 성별 간, 세대 간의 관계망이 연결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McDonald, 2011).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력한 내부 충성을 유도함으로써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 모두 강력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Putnam, 2004: 23, 남궁근, 2007: 303 재인용).

3. 요약

<표 2-1>은 제1절에서 살펴본 사회자본의 학문적 개념을 요약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및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Bourdieu 등에 따르면 미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Putnam 등에 따르면 거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도와주는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Portes(1998)가 제시한 사회자본의 4가지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한 연결망은 배타성을 떨 수 있기에 다른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강한 연결망 내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야 하는 불합리한 규범 등으로 인해 성공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특정한 공동체나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혁신이나 변화를 추구하려는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넷째, 공동체의 결속력은 공통된 경험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취약한 계층 내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개인의 행동은 오히려 일탈적 행동으로 여겨지게 된다”(Ellemers and Barreto, 2008)(출처:Enthusiast 블로그, 「사회자본과 사회복지 실천」, <http://enthusiast96.blog.me/50087693463>, 접속일: 2017.11.27).

〈표 2-1〉 사회자본의 개념, 구성요소 및 특징

| |
|--|
| □ 사회자본의 학문적 개념 ¹⁾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Bourdieu) ○ 주어진 구조 속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Coleman) ○ 연결망에 포함된 덕택으로 희소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개인의 능력 (Portes) ○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도와주는 사회 조직의 특성(Putnam) ○ 시장에서 이익을 기대하며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것(Lin) |
| □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호혜의 규범과 가치, 협력적 네트워크 |
| □ 사회자본의 특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로 배타성이 없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음(Putnam, 1993) ○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 유지되고 재생산됨(Bourdieu, 1986) ○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남(Putnam, 1993) |

자료: 1) 장시준(2014), 『교육은 사회자본의 형성』, Economy 21(7월호 커버스토리).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에는 신뢰(trust), 호혜(reciprocity)의 규범과 가치 및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Fukuyama(1995)는 신뢰를 사회자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신뢰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보편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이며 이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는 호혜의 규범과 가치를 전제로 하며, 이는 곧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타인에게서 사회 규범적인 행동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개인이 타인과 얼마나 협력적으로 행동할 것인지(성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다(Bliek, 2015; Siegler, 2014).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은 공공재로 배타성이 없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Putnam, 1993),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 유지되고 재생산되며(Bourdieu, 1986),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Putnam, 1993) 측면에서 기타 자본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제2절 사회자본의 수준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

본 절은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자본의 수준을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한다. 또한 사회자본과 사회경제적 계층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 격차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 살펴본다.

1. 사회자본의 수준

사회자본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국제 자료에는 1981년부터 4~5년 간격으로 측정된 World Value Survey(WVS)와 2010년대부터 측정을 시작한 OECD의 Better Life Index(BLI)가 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World Value Survey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라는 문항을 포함한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 믿을 수 있다(Most people can be trusted)”로 대답한 비율(이하 타인 신뢰자)은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수준을 의미한다.

<표 2-2>와 [그림 2-1]은 한국과 WVS를 통해 조사된 일부 국가(스웨덴, 일본,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 나타나는 타인 신뢰자 비율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준다. <표 2-2>에 따르면 2010~2014년 기준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26%로 스웨덴의 동 비율인 6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본의 36%나 미국의 35%보다도 상당히 낮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스웨덴,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보다는 높다.

또한 [그림 2-1]에 따르면 한국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스웨덴이나 일본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표 2-2〉 한국 및 일부 국가의 타인 신뢰자 비율(1981~2014)

(단위:%)

| | 1981~88 | 1989~93 | 1994~98 | 1999~04 | 2005~09 | 2010~14 |
|----------|---------|---------|---------|---------|---------|---------|
| 한국 | 36 | 34 | 30 | 27 | 28 | 26 |
| 스웨덴 | 52 | 60 | 57 | 64 | 64 | 60 |
| 일본 | 37 | 38 | 40 | 40 | 37 | 36 |
| 미국 | 42 | 50 | 35 | 36 | 39 | 35 |
| 아르헨티나 | 25 | 22 | 17 | 15 | 17 | 19 |
| 멕시코 | 17 | 30 | 26 | 21 | 15 | 12 |
| 기타 국가 평균 | 35 | 40 | 35 | 35 | 34 |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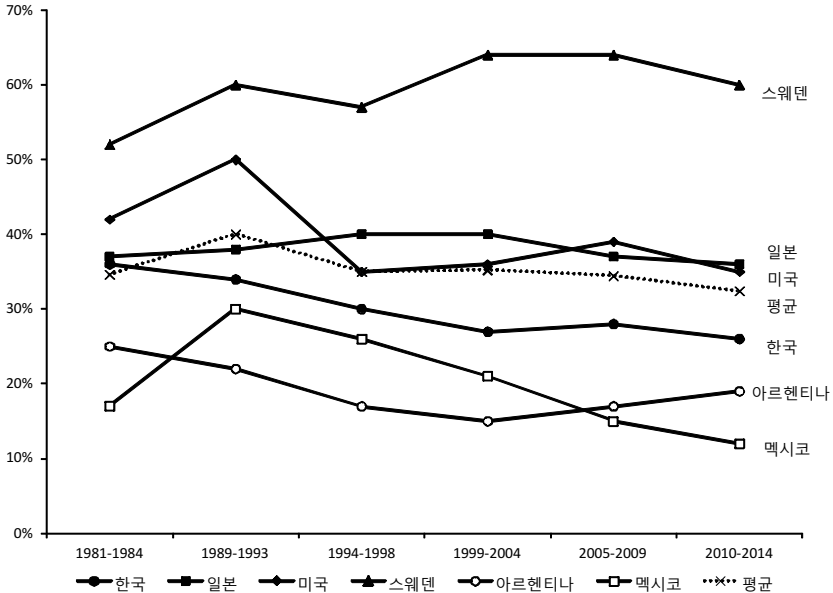
주: 1) 타인 신뢰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에 “대부분 믿을 수 있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기타 국가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의 평균임.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 1~6.

(그림 2-1) 한국 및 일부 국가의 타인 신뢰자 비율(1981~2014)

(단위:%)



주: 1) 타인 신뢰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에 “대부분 믿을 수 있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의 평균임.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 1~6.

1980년대 초반에는 약 36%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약 26%로 일본보다 10%p가량 낮아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멕시코의 타인 신뢰자 비율도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북유럽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동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도 초반에는 1980년대에 비해 타인 신뢰자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그 비율이 198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WVS 이외에도 OECD의 BLI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존재하는지(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를 조사하며,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가진 자(이하 사회지원망 보유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2-3>은 2012~2016년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과 한국을 제외한 33~34개 OECD 회원국의 동 비율의 평균을 제시한다. 2016년(2014~2016년 평균) 기준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76%로 기타

<표 2-3> OECD 회원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2012~2016)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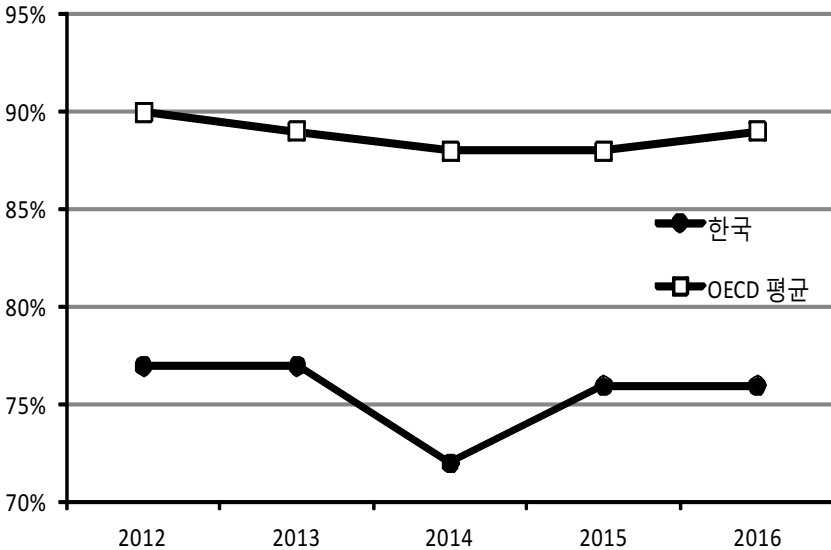
| 조사연도 | 한 국 | OECD 평균(한국 제외) |
|------|-----|----------------|
| 2012 | 77 | 90 |
| 2013 | 77 | 89 |
| 2014 | 72 | 88 |
| 2015 | 76 | 88 |
| 2016 | 76 | 89 |

- 주: 1) 한국의 2013년 수치는 2012년 수치를 사용함.
 2) 2016년 수치의 경우 2014~2016년의 평균임.
 3) OECD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33~34개 OECD 회원국의 평균임.
 4)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존재합니까?”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2012~2016.

[그림 2-2] OECD 회원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2012~2016)

(단위: %)



- 주: 1) 한국의 2013년 수치는 2012년 수치를 사용함.
- 2) 2016년 수치의 경우 2014~2016년의 평균임.
- 3) OECD 평균은 한국을 제외한 33~34개 OECD 회원국의 평균임.
- 4)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존재합니까?”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2012~2016.

OECD 회원국 평균인 89%보다 13%p 낮아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BLI가 조사된 2012~2016년 내내 OECD 타 회원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2014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큰 변동 없이 76~7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2-2~3>과 [그림 2-1~2]의 특징을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또한,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타인 신뢰자 비율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2.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WVS 및 BLI를 바탕으로 한 통계는 국가의 사회자본 수준을 보여주지만 한 국가 내 사회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사회자본의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회자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 간 사회자본 수준의 격차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를 살펴본다.

가. 국제비교

WVS와 유사하게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조사한 OECD의 Survey of Adult Skills 자료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 2-4>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별 타인 신뢰자 비율을 제시한다. <표 2-4>의 전체, 고졸, 대졸은 각각 응답자 전체, 고졸자, 대졸자의 타인 신뢰자 비율을, ‘대졸-고졸’은 대졸자와 고졸자의 타인 신뢰자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표 2-4>에서도 <표 2-2~3>의 결과와 유사하게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은 현상과 동시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을 포함한 전체 국가에서 ‘대졸-고졸’의 수치가 양수인 것은 조사에 포함된 OECD 국가 전체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 신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2-4>에 따르면 한국의 타인 신뢰수준의 학력 간 차이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예를 들어 대졸자와 고졸자의 타인 신뢰자 비율의 차이는 OECD 평균의 경우 12.63%p이지만 한국의 경우 6.73%p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교육수준이 OECD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졸자나 대졸자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국가의 고졸자나 대졸자와는 다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학력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의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최종 학력수준과 사회자본이 정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표 2-4〉 OECD 회원국의 학력별 타인 신뢰수준의 차이

(단위: %, %p)

| | 전체 | 고졸 | 대졸 | 대졸 - 고졸 |
|-------|-------|-------|-------|---------|
| 한국 | 13.10 | 10.73 | 17.46 | 6.73 |
| 오스트리아 | 22.35 | 20.37 | 32.15 | 11.78 |
| 캐나다 | 25.05 | 20.53 | 30.32 | 9.79 |
| 체코 | 7.69 | 5.41 | 17.82 | 12.41 |
| 덴마크 | 45.15 | 36.19 | 62.45 | 26.26 |
| 에스토니아 | 9.95 | 7.24 | 14.64 | 7.40 |
| 핀란드 | 33.72 | 27.94 | 43.83 | 15.89 |
| 프랑스 | 11.47 | 9.28 | 17.34 | 8.06 |
| 독일 | 15.05 | 12.12 | 21.98 | 9.86 |
| 아일랜드 | 16.23 | 13.35 | 22.43 | 9.08 |
| 이탈리아 | 9.35 | 7.91 | 19.25 | 11.34 |
| 일본 | 18.22 | 15.05 | 22.67 | 7.62 |
| 네덜란드 | 31.69 | 25.82 | 44.99 | 19.17 |
| 노르웨이 | 34.27 | 26.46 | 48.94 | 22.48 |
| 폴란드 | 15.66 | 12.69 | 24.20 | 11.51 |
| 슬로바키아 | 9.70 | 8.79 | 13.58 | 4.79 |
| 스페인 | 21.46 | 17.62 | 30.77 | 13.15 |
| 스웨덴 | 34.12 | 28.17 | 49.25 | 21.08 |
| 미국 | 22.54 | 17.15 | 32.21 | 15.06 |
| 벨기에 | 18.62 | 13.19 | 28.54 | 15.35 |
| 영국 | 18.81 | 14.70 | 26.04 | 11.34 |
| 평균 | 18.94 | 14.78 | 27.41 | 12.63 |

주: 1) 타인 신뢰 여부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고(“There are only a few people you can trust completely”의 문항에 “Disagree” 혹은 “Strongly Disagree”로 응답) 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OECD, Survey of Adult Skills 2013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나. 국내자료 분석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학력 이외에도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상용직, 자영업자, 임시직), 소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에 따른 일반인, 기관 및 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한다. 동 자료에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귀하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전반적 기관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 부처 및 국회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각각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각각 “① 전혀 믿을 수 없다, ② 별로 믿을 수 없다, ③ 약간 믿을 수 있다, ④ 매우 믿을 수 있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된다. 집단에 대한 신뢰는 가족(친척 포함), 이웃,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및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약간 신뢰한다, ④ 매우 신뢰한다”의 4점 척도로 각각 측정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인 <표 2-5>에 따르면 전체 조사자 기준으로 일반인 신뢰 점수는 4점 만점 기준 2.69점, 기관 신뢰 점수는 2.24점이며, 집단 신뢰 점수의 경우 가족은 3.59점, 지인은 2.92점, 이웃은 2.62점, 외국인은 1.75점, 타인은 1.74점이다. 한국에서 기관 신뢰 점수는 일반인 신뢰 점수보다 낮다. 또한, 여러 집단 중 가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인, 이웃, 외국인, 타인 순으로 신뢰도가 높다. 즉 일반인보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여러 집단 중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반면, 타인 및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지표에 따른 신뢰 수준을 비교하면 응답자의 학력이나 노동시장 지위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 정도와는 대체로 정비례하지만 기관 신뢰 정도와는 다소 반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집단 중 가족, 지인, 외국인 및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학력이나 노동시장 지위와 대체로 정비례하지만 이웃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상용직, 고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고학력자 등에서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2-5〉 학력 및 노동시장 지위별 신뢰수준의 차이

(단위: 점)

| | | 비율 (%) | 일반인 신뢰 | 기관 신뢰 ¹⁾ | 집단에 대한 신뢰 | | | | |
|------------------|-------------------|--------|----------------|---------------------|----------------|----------------|----------------|----------------|----------------|
| | | | | | 가족 | 지인 | 이웃 | 외국인 | 타인 |
| 전 체 | | 100.00 | 2.69 (0.60) | 2.24 (0.55) | 3.59 (0.57) | 2.92 (0.61) | 2.62 (0.66) | 1.75 (0.66) | 1.74 (0.67) |
| 일자리 보유 여부 | 없음 | 29.26 | 2.70 (0.61) | 2.28 (0.56) | 3.59 (0.56) | 2.95 (0.62) | 2.61 (0.66) | 1.75 (0.66) | 1.73 (0.66) |
| | 있음 | 70.74 | 2.69 (0.60) | 2.23 (0.55) | 3.59 (0.57) | 2.91 (0.60) | 2.62 (0.66) | 1.74 (0.66) | 1.75 (0.68)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 54.72 | 2.71 (0.60) | 2.21 (0.55) | 3.61 (0.56) | 2.92 (0.61) | 2.58 (0.67) | 1.75 (0.66) | 1.75 (0.68) |
| | 자영업자 | 25.32 | 2.64 (0.59) | 2.26 (0.55) | 3.58 (0.58) | 2.92 (0.60) | 2.71 (0.63) | 1.79 (0.67) | 1.81 (0.70) |
| | 임시직 ²⁾ | 19.95 | 2.68 (0.59) | 2.23 (0.53) | 3.53 (0.59) | 2.88 (0.58) | 2.63 (0.65) | 1.67 (0.63) | 1.69 (0.63) |
| 개인 + 가구 소득 | <10 | 13.46 | 2.61 (0.60) | 2.29 (0.55) | 3.52 (0.62) | 2.87 (0.61) | 2.67 (0.66) | 1.68 (0.63) | 1.69 (0.64) |
| | 11~25 | 13.40 | 2.67 (0.59) | 2.21 (0.56) | 3.56 (0.55) | 2.90 (0.60) | 2.65 (0.60) | 1.70 (0.64) | 1.70 (0.65) |
| | 26~50 | 22.82 | 2.65 (0.62) | 2.19 (0.54) | 3.55 (0.59) | 2.90 (0.59) | 2.57 (0.68) | 1.71 (0.64) | 1.72 (0.63) |
| | 51~75 | 25.70 | 2.68 (0.59) | 2.24 (0.56) | 3.63 (0.53) | 2.92 (0.61) | 2.60 (0.66) | 1.73 (0.66) | 1.75 (0.70) |
| | 76~90 | 13.52 | 2.77 (0.58) | 2.27 (0.56) | 3.62 (0.55) | 2.96 (0.62) | 2.67 (0.66) | 1.83 (0.68) | 1.82 (0.70) |
| | 90< | 11.29 | 2.83 (0.60) | 2.30 (0.53) | 3.62 (0.59) | 3.02 (0.61) | 2.61 (0.66) | 1.89 (0.70) | 1.83 (0.70) |
| 4대 보험 | 없음 | 69.55 | 2.67 (0.60) | 2.26 (0.56) | 3.57 (0.57) | 2.91 (0.62) | 2.63 (0.67) | 1.75 (0.66) | 1.75 (0.67) |
| | 있음 | 30.45 | 2.73 (0.61) | 2.20 (0.54) | 3.62 (0.56) | 2.94 (0.59) | 2.58 (0.64) | 1.75 (0.65) | 1.74 (0.67) |
| 학력 | 고졸 미만 | 11.23 | 2.61 (0.60) | 2.36 (0.53) | 3.54 (0.58) | 2.85 (0.58) | 2.80 (0.57) | 1.66 (0.60) | 1.71 (0.62) |
| | 고졸· 전문대 | 63.55 | 2.68 (0.59) | 2.23 (0.54) | 3.57 (0.58) | 2.91 (0.61) | 2.60 (0.67) | 1.72 (0.66) | 1.72 (0.67) |
| | 4년제 대졸 | 25.22 | 2.76 (0.62) | 2.22 (0.58) | 3.63 (0.54) | 2.99 (0.59) | 2.59 (0.64) | 1.85 (0.67) | 1.82 (0.70) |

주: 1) 기관 신뢰는 17개 기관의 신뢰에 대한 응답의 평균임.

2) 임시직은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3) 개인+가구 소득은 개인과 가구소득의 합인 백분위임.

4) 수치는 4점 척도로 조사된 점수의 평균점수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표 2-5>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자본 지표 중 기관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은 학력이나 노동시장 지위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학력이나 노동시장 지위와 사회자본의 정비례 관계는 사회자본이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3절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본 절은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련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 주요 선행연구 결과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크게 개인적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수준이 각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가. 인적 네트워크와 노동시장 성과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구직하였는지의 여부가 취업 여부,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1절에서 소개한 Granovetter(1973; 1983)는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며 동 연구에 따르면 네트워크 집단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한 연결관계보다는 약한 연결관계의 네트워크 집단이 고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의 결과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생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Marmaros and Sacerdote (2002)에 따르면 대학 동문회나 동아리 가입 여부 등은 고용과 임금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등학생의 고용 경로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Rosenbaum, DeLuca, Miller and Roy(1999)에 따르면 학교나 친척의 소개를 통해서 첫 일자리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졸업 9년 후에 더 높은 임금을 받지만 친구를 통한 구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취업과 임금 이외에도 인적 네트워크는 근속과 재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입사는 퇴사 가능성을 낮추며 근속연수를 증가시킨다(Datcher, 1983; Simon and Warner, 1992). 특히 회사 내부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입사한 경우 외부자의 추천을 통해 입사한 경우보다 이직률이 월등히 낮다(Kmec, 2007). Cingano and Rosolia(2012)에 따르면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실직자의 재취업 기간이 짧아진다. 또한 Schmutte(2015)에 따르면 실업자는 이웃과 같은 직장에 재취업을 할 확률이 높고, 이웃이 고소득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금이 높은 직장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활용되는 방법을 연구한 Hensvik and Skans(2016)에 따르면 기업은 내부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규 입사자를 소개한 내부 구성원의 능력이 뛰어나수록 신규 입사자의 초임 역시 높다.

한국의 구직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구직 시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면 국내 구직자의 약 60%가량은 친구나 친지, 교수나 교사, 가족, 지인 등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이는 핀란드(25.8%), 일본(41.3%), 미국(44.3%) 등 해외 선진국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김영철, 2010). 또한 이러한 의존도는 첫 직장 구직(약 40%)보다 경력직(약 65%)에서 더 크게 나타나서, 인적 네트워크는 학력 등의 일반적인 인적자본보다는 직무 관련 특수자본과 같이 특정 직업에서의 직무능력의 검증 및 정보교환 등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철, 2010).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 경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서 활발히 사용되지만, 특히 소형기업으로 갈수록 더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영철, 2010).

이렇듯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준호(2007)는 2005년(제5차)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구직방식과 구직결과(직업성취도, 직업지위, 임금수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준호(2007)는 구직방식을 구직자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모, 친척 등에게서 정보를 얻는 개인적 연결망, 학교 추천이나 실습을 통해서 구직을 하는 제도적 연결망,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해서 구직을 하는 기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타 방식보다는 개인적 혹은 제도적 연결망을 사용하여 구직한 경우 직업성취도와 임금수준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각각 따로 분석할 경우 제도적 연결망만이 직업성취도,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가지 연결망 모두 임금수준에는 기타 방식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최준호, 2007).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는 201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인적 네트워크와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최준호(2007)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장치인 취업박람회, 학교 취업정보실 등을 이용하여 취업을 한 경우 인터넷 등의 공식 정보망을 통하여 취업을 한 경우보다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정규직일 확률이 높았지만,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얻어 취업한 경우 공식 정보망을 이용하여 취업한 경우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정규직일 확률이 낮았다. 임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구직한 경우 임금이 공식 정보망을 통하였을 때보다 높았고 임금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지만 개인적 관계를 통한 구직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진(2007)은 2004년(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 방법과 직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강유진(2007)은 사회자본을 가족, 친구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직 정보를 구하였는지 혹은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공식기관을 통하여 얻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구직한 경우 월평균 임금이 더 낮았다.

또한 2000년(제3차)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김성훈(2005)에 따르

면 가족, 교육기관 및 기존 근무자의 소개로 취업한 경우의 시간당 임금은 기존 근무자가 소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을 성향점수매칭 방법으로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김영철(2010)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이 개인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임금을 높이고 교육과 기술수준의 일자리 매치 적합성을 현저히 개선시킨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김영철(2010) 등 일부 연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내연구는 해외연구와는 달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임을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국내연구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직한 자와 구직하지 않은 자의 개인적 특성이 다른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나.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신뢰 혹은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회자본의 중요 구성요소이다. 최근 개인적 네트워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이외에도 사회적 신뢰를 개인의 다양한 성과에 연관 지어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Brisson(2009)은 사회적 참여의 형태 중 하나인 봉사활동 여부로 조직적 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신뢰적 관계 형성(formal bonding social capital)을 측정하였고, 이와 빈곤한 가정의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formal bonding)의 소유는 자신 혹은 배우자가 풀타임 근로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

Slemrod and Katuscak(2001)는 1990년 World Value Survey(WVS)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신뢰는 타인 신뢰 여부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정직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하시오(Please tell me whether you think lying in your own interest can always be justified,

never be justified, or something in between)”라는 질문에 대하여 10점 척도(‘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에서 ‘항상 정당화될 수 있다’ 사이)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신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금과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 정직성은 사회적 신뢰성이 높은 나라에서만 임금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 정직성은 오히려 임금과 부(-)의 관계를 보인다.

Michalski and Schupp(2009)는 2003년 및 2008년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과 고용상태 및 임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개인이 타인에게 느끼는 신뢰도는 두 해 모두 평균 10점 척도에서 4.9점으로 높지 않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짓는 요인을 확률 효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낮은 사람, 낮은 학력, 실직자 등의 신뢰도가 낮은 반면 파트타임 종사자, 자영업자, 친구가 많은 사람 등의 신뢰도는 높다. 특히 이 연구에 따르면 대출 여부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 여부나 임금수준보다 더 크다. 또한 2003년에 실직상태였던 사람이 2008년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며, 반대로 2003년에 취업상태였던 사람이 2008년에 실직상태인 경우 신뢰도가 낮아져 취업과 개인의 신뢰도는 정의 관계에 있다(Michalski and Schupp, 2009). 마찬가지로 중위권 임금 그룹이 하위 20%로 떨어지는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지만, 상위 20%로 상승하는 경우는 신뢰도와 연관이 없다(Michalski and Schupp, 2009). 즉 고용상태 및 임금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대체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liek(2015)는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임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Bliek는 Michalski and Schupp(2009)와 마찬가지로 2003년 및 2008년 SOEP 자료를 잠재계층분석기법(Latent Class Analysis: LCA)으로 분석하여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가지는 그룹과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그룹으로 나누고 사회적 신뢰와 임금(시간당 임금, 연평균 임금)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신뢰 그룹을 나누는 데 사용된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on the whole, I trust people)”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you can't be too careful when dealing

with strangers)”의 두 가지 문항이다. Bliet는 LCA 방식으로 도출한 사회적 신뢰 이항변수를 OLS 방식과 더불어 IV 방식으로도 분석하는데, 이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등 Michalski and Schupp(2009)와 유사하게 사회적 신뢰는 임금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역인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Gomez and Santor, 2001; Marschall and Stolle, 2004). 또한 Bliet는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을 대변하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협력적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이라고 생각합니까?(do you think that most people are helpful, or that they are self-interested?)”라는 문항에 “대부분의 사람이 협력적이다(people are helpful)”라고 응답하는지 여부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란 결국 타인이 얼마나 협력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별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 사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회가 얼마나 협력적인가를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회귀분석과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3년과 2008년 모두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2~9%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Bliet, 2015). 또한 2003년에 낮은 신뢰도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11%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를 바탕으로 신뢰 또는 정치 참여(투표 여부)와 개인소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Weaver(2012)에 따르면 신뢰 또는 정치 참여 활동은 소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다.

윤준섭·김종관·유범재(2015)는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지식과 경력성공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897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Putnam(1993)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였고, 경력성공은 직무 및 경력만족 등의 주관적인 성과로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직무 및 경력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윤준섭·김종관·유범재, 2015). 하지만 이 연구는 설

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만족도라는 일부 변수만을 분석하였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단순 상관관계 이상을 밝히지 못했다.

2.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해외연구에 비해서 신뢰와 취업, 임금 등 노동시장 지표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미진하다. 이는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파악할 만한 국내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공개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를 아래 식 (2-1)로 분석한다.

$$y_i = a_0 + a_1 \text{사회자본}_i + a_2 X_i' + e_i \quad (2-1)$$

y 는 노동시장 성과 지표이다. y 가 근로 여부(지난 일주일간 일자리 보유 여부), 상용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의 이항변수인 경우 응답자 i 가 분석내용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이다. 연속변수인 y 는 응답자 i 의 개인 소득(만 원 단위)이다. 사회자본은 <표 2-5>에 제시된 일반인, 기관, 지인, 이웃, 외국인, 타인에 4점 척도의 신뢰 수준이다. 가족에 대한 신뢰수준은 개인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한다. X_i' 는 통제변수 벡터로 나이(연속변수), 성별과 거주지(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이항변수를 포함한다. 사회자본이 최종학력 수준에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종학력 수준은 통제변수에서 제외한다. e_i 는 교란항이다. 식 (2-1)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로짓모형으로,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최소자승법 회귀모형(OLS)으로 분석된다. <부표 1>은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신뢰는 내생적인 변수이며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는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 2-6>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단순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한다.

<표 2-6>에 따르면 임금은 지인 및 외국인 신뢰수준과, 상용직 여부는 6개의 신뢰수준 전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일반인, 지인, 외국인 신뢰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 기관 신뢰를 제외하면 근로 여부는 신뢰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표 2-6〉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 | (1) 근로 여부 | (2) 임금 | (3) 상용직 여부 | (4) 4대보험 가입 여부 |
|------------------------------|----------------------|---------------------|---------------------|----------------------|
| A: 일반인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 | |
| 일반인 신뢰 | 0.022 (0.056) | 7.510 (5.978) | 0.305*** (0.081) | 0.241*** (0.071) |
| B: 기관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 | |
| 기관 신뢰 | -0.170*** (0.064) | -5.155 (5.874) | 0.160* (0.091) | -0.0134 (0.081) |
| C: 지인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 | |
| 지인 신뢰 | -0.039 (0.056) | 13.44*** (4.884) | 0.232*** (0.074) | 0.279*** (0.072) |
| D: 이웃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 | |
| 이웃 신뢰 | 0.011 (0.057) | 0.139 (5.286) | 0.167** (0.078) | 0.096 (0.069) |
| E: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 | |
| 외국인 신뢰 | -0.042 (0.052) | 16.31*** (5.188) | 0.207*** (0.079) | 0.135** (0.068) |
| F: 타인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 | |
| 타인 신뢰 | 0.028 (0.050) | 6.217 (4.761) | 0.190** (0.074) | 0.100 (0.066) |
| 표본 수 | 8,000 | 3,996 | 3,996 | 3,996 |

주: 1) 나이, 성별 및 거주지 더미를 통제한 결과이며 통제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2) 임금, 상용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분석의 표본은 임금근로자로 한정함.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표 2-6〉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역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소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좋다거나, 노동시장 성과가 좋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양과 관련된

근로 여부를 제외하고서 고용의 질과 관련된 임금, 상용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대체로 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표 2-6>은 해외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노동시장 성과가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4절 소 결

사회자본은 비물질적 자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은 신뢰 유지, 규범 준수, 개인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공공재로 배타성이 없고(Putnam, 1993),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 유지되고 재생산되며(Bourdieu, 1986),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Putnam, 1993) 사회자본의 특징은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높지 않다. 2010년대 한국의 타인 신뢰자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2014~2016년 평균 한국의 사회지원망 보유자 비율은 76%로 기타 OECD 회원국 평균인 89%보다 13%p 낮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비례하며 노동시장 성과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낮은 것은 우려스럽다. 다수의 해외연구는 대체로 개인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 및 취업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장에서 국내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노동시장 성과는 정(+)의 상호관계가 있다. 물론 이는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 상관관계를 의미하지만 사회자본을 통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배타성이 없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사회자본의 특징은 사회자본이 증가하고 확산되면 일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한다.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 마련과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회자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비행2)

본 장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이용하여 청소년기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다수의 해외연구에 따르면 한 사회의 공동체, 이웃, 타인에 대한 신뢰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집 밖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류하는 동료학생의 높은 사회자본 수준은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비행, misbehavior)을 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public policy)은 그 세부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과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은 학생의 교육성취도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탕으로 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공정책은 공익이라는 측정이 힘든 최종 목표를 발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부정책별로 특정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호

2) 본 장의 초고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비행」(오선정, 2017.9.14)으로 발표된 바 있다.

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정책 중의 대표적인 예가 주변 인적구성원들 간의 신뢰 및 관계를 향상시키는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및 공동체 의식,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등에 관한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본 장은 학교친구의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부모의 교육수준을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사회자본이 청소년 개개인의 현재 및 미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청소년기 경험은 개개인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 등 저연령층 인구의 행동이나 인식에 정책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할 경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같은 시·도 내 학교 간의 사회자본 수준의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기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비행확률이 낮다. 또한 이 효과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상기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 및 교류의 중요성과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관련 사회자본 및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제2절에서는 분석방법, 분석자료 등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4절에서는 소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1절 선행연구

1. 비행의 개념

비행이란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서 협의로 해석하면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법행위를 지칭하는 범

률적 개념으로 성인보다는 청소년의 범죄 및 우범행위를 의미한다(김경식·이현철, 2007). 반면 광의의 측면에서의 비행은 반사회적 일탈행위로 그 범위 및 비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적 정의는 시대·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김자경·손정락, 2007). 그중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는 크게 중비행, 경비행, 지위비행의 세 가지 범주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김준호 외, 2014). 중비행은 살인, 강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 및 절도 등의 재산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포함하고, 경비행은 이보다는 경미한 형법 위반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위비행은 음주 및 흡연과 같이 범죄행위는 아니나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으로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행의 일부로 정의된다(김준호 외, 2014). 비행이란 이렇듯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비행은 형법상 비행과 더불어 지위비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2.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행동은 개인의 성향에서부터 성장과정 및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비행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청소년 집단의 사회자본은 크게 가족,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되는 세 가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이재영·공태명, 2010).

첫 번째 네트워크는 청소년이 가족과 이루는 유대감, 부모의 관심 등을 포함하는 가족 사회자본이다(Coleman, 1988). 가족 사회자본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며(김경식·최성보·이현철, 2009; 문은식·김충희, 2002), 청소년의 비행 및 반규범적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강현아, 2007; 정소희, 2007; McNeal, 1999). 제1~3차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강현아(2007)는 부모, 교사, 친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향후 학교와의 유대감으로 설명되는 사회통제에 대한 순응 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또한 이러한 성향이 이후 중비행(비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강현아(2007)에 따

르면 제1차년도에 조사된 사회자본은 2차년도에 조사된 학교와의 유대감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 이는 다시 3차년도에 조사된 중비행 정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사회자본은 중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족 사회자본,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학생이 사회통제에 순응하는 성향을 매개로 하여 중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렇듯 가정은 청소년의 규범적 성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산업화와 더불어 가정이 전통적으로 맡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은 학교 및 지역사회로 이전되고 있다(Portes, 1998).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의 사회자본은 교사와 학생 간 혹은 학생과 학생 간 등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에서 비롯되며(최준호, 2010),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일탈행동 등 다양한 행동적, 성취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영·공태명, 2010; 문은식·김충희, 2002; 이경은, 주소희, 2008; 김천기, 2004). 예를 들어, 제5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청소년의 경비행 횟수를 분석한 이재영·공태명(2010)에 따르면 강현아(2007)와 유사하게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더 깊게 관여할수록 일탈행위의 빈도는 낮았으며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수록 일탈행위의 빈도가 낮았다. 이재영·공태명(2010)은 학교 사회자본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자본은 이웃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3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고등학교 1학년생을 분석한 정기원·권량희(2006)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는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의 학교 사회자본이 부모의 관여도 등의 가족 사회자본과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저해하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라는 공동체의 사회자본 중 학생 개인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이다. 제1~3차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강현아(2007)에 따르면, 친구와의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낮지만 이는 공부 흥미도 등 학교 유대감의 형성을 매개

로 하여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현철·김경식·최성보, 2016; 황매향, 2006).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에 적응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비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청소년이 친구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의 정도가 비행에 영향을 준다.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등이 긍정적인 규범의 형성을 돕고 결과적으로 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청소년의 비행에는 친구와의 관계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맺는 대상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학생은 비행에 스스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제2~5차년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자료를 분석한 황성현(2016)에 따르면, 비행 친구와의 지속적인 접촉은 경비행을 증가시킨다. 또한 박영신·김의철(2010)은 친구의 일탈행동, 친구의 자기효능감, 친구의 부모자녀관계, 설문자의 일탈행동 및 부모자녀관계 등을 5개 고등학교 1,39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일탈행동임을 밝혔다. 또한 친구의 가정배경 역시 학생의 여러 행동적인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를 둔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를 중퇴하거나 마약을 하는 등 일탈행동을 할 확률이 낮고 반대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Bifulco, Fletcher and Ross, 2011; Bifulco, Fletcher, Oh and Ross, 2014). 이러한 결과들은 친구와의 관계와 더불어 친구의 성향과 배경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자본도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개인이 사회와 멀어지거나 사회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발생한다고 보며 사회적 보살핌과 교양이 범죄적 성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Rosenfeld, Messner and Baumer, 2001).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비행 및 일탈 행동은 학생의 행동에 대한 지역사회적 관심이 줄어들 때 늘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사회자본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규범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제4차 한국청소년패널 중1 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경식·최성보·이현철(2009)에 따르면,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지역 주민의 신뢰 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행과 같은 비규범적 행동을 감축함으로써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학생의 성적 및 중퇴율 등 학교적응성과도 관련이 있다(Braastz and Putnam, 1996).

즉 다양한 사회자본적 경로 중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일탈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생활을 같이하는 또래 학생이다. 지역 내 관심과 통제가 학생의 행동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사회자본도 역시 학생 개개인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사회자본은 긴밀한 정(+)의 관계가 있다(Perkins and Long, 2002).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학생의 일탈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형임·문영경(2013)에 따르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학생 및 교사와의 관계 역시 완만하여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 이를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 관련 선행연구에 적용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 사회자본 등을 통해서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다문화 수용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김영춘, 2014), 친사회적 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다(박수경·양심영, 2017). 따라서 다문화 수용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규범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문화 수용도도 청소년의 비행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비행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 홍태경·류준혁(2011)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재용·한보영·이운호(2014)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지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기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가족배경, 지역사회 등의 주변 환경은 청소년의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성별, 가족배경, 주변환경을 통제변

수로 사용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방법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학교에서 교류하는 친구가 청소년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의 성향이 학생 개인의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다양한 개인적 성향 중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바탕으로 측정된 사회자본과 학부모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측정된 사회자본의 수준에 초점을 둔다.

학교친구의 인식이 청소년 A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causation)를 밝히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A 자신도 친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관계(reflection) 때문에 학교친구의 사회자본을 비롯한 성향이 청소년 A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중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사회자본 수준이 미래(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 A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청소년 A가 친구들이 과거에 가진 사회자본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식 (3-1)로 측정된다.

$$\begin{aligned} \text{비행}_{i,s,t} = & \beta_0 + \beta_1 \text{사회자본}_{s,2011} + \beta_2 F_i + \beta_3 \text{모친대졸}_i \\ & + C_{i,s,c}' + \epsilon_i \end{aligned} \quad (3-1)$$

비행_{i,s,t}는 중학교 s에 재학했던 청소년 i의 t년도(2011~2015년) 비행 관련 변수이며, 사회자본_{s,2011}은 중학교 s의 2011년(중2 시절) 사회자본

관련 지표로 다음 절에서 두 변수의 측정방법을 설명한다. F_i 는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가족배경의 대리변수로 포함시킨 모친대졸은 학생 i 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주변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시킨 $C_{i,s,c}$ '는 청소년 i 가 다닌 중학교 s 가 <표 3-5>에 제시된 16개 시·도 중 어떤 시·도 c 에 소재하는지에 대한 15개 시·도(1개 준거 시·도 제외)에 대한 이항변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동일한 시·도 내에서 학교 간 사회자본 수준의 작은 차이는 기타 개인적 요인과 무관하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에 최소한의 통제변수를 포함시킨다. 또한 각 학교의 동급생 수가 많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통제변수를 사용한 경우 분석에 사용될 변이(variation)가 작아진다. ϵ_i 는 오차항이다. 주요 결과변수인 비행이 이항변수이면 식 (3-1)을 로짓모형으로, 연속변수이면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다. 아직 일부 자료의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아 가중치 없이 분석한다.

2. 분석자료 및 변수 측정방법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비행에 대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초1, 초4, 중1 패널로 구성되며, 2010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16년까지 7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2011년) 시기 같은 중학교에 다닌 동급생의 특성으로 측정된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포함된 제2차 조사부터 동 청소년의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마지막 조사인 제6차 조사까지를 이용한다. 제7차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비행 중 무단결석이나 가출에 대한 조사가 제6차까지만 포함되었고 중·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대학생의 상관관계는 비행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3-1>은 이 패널에 포함된 학생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에 대한 설문 내용이다. 지역사회 인식 관련 설문은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이다. 공동체의식 관련 설문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다. 제1차 조사 이후 다문화 수용도 관련 문항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인 문항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 줄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이다. 상기 설문의 선택항목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 3-1>에 제시된 상기 세 가지 영역의 총 15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이용하여 이항변수 및 연속변수로 개인의 사회인식 수준을 측정한다. 각 학생의 첫 번째 사회인식 지표(SOC1)는 각 문항 전체에 ① 매우 그렇다 또는 ②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면 높은 사회인식 보유 여부가 1의 값,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³⁾ 제2차 조사의 분석표본인 총 2,229명 중 상기 15개 항목 전체에 ① 매우 그렇다 또는 ② 그런 편이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6.15%인 137명에 불과하다. 두 번째 사회인식 점수(SOC2)는 각 문항에 대한 선택항목의 값을 더한 값이다. 분석결과 해석의 편의상 각 문항이 큰 수일수록 높은 인식수준을 갖는 것으로 역코딩(① 매우 그렇다 4, ② 그런 편이다 3,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하였다. 각 학생의 사회인식 점수(SOC2)는 총 15개 문항의 합으로 최소 15(1*15=15)에서 최대 60(4*15=60)의 값을 갖는다. 제2차 조사 분석표본의 사회인식 점수의 평균점수는 41.28, 표준편차는 6.51이다.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2 학생의 사

3) 상기 이유로 15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만 답변한 학생은 분석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회인식은 평균인 41점대에 집중되어 있고 30점 미만에는 매우 적은 수의 학생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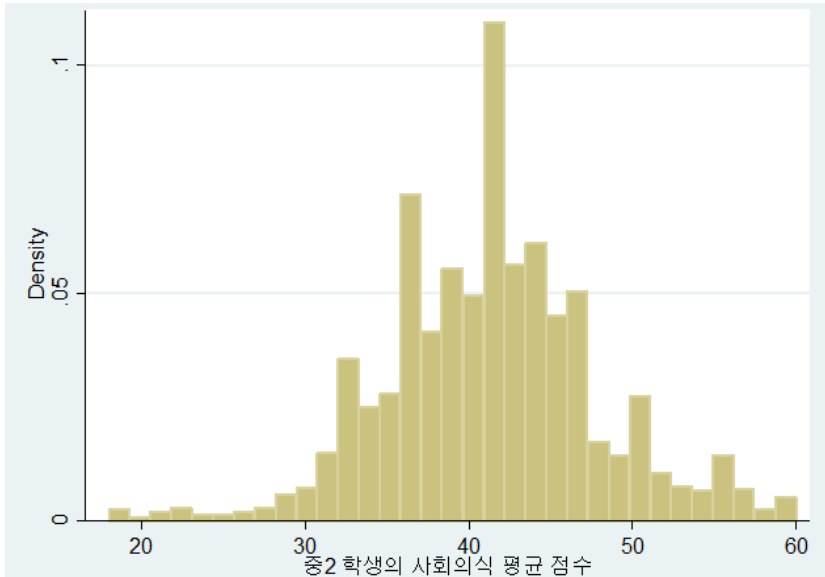
〈표 3-1〉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사회자본 관련 설문

| | 설문 문항 | 선택항목 |
|----------------|---|---|
| 지역 사회 인식 | 1.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2.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 |
| | 3.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하지 않는다 ¹⁾ | |
| | 4.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 |
| | 5.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 |
| | 6.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
| 공동체 의식 | 7.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8.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
| | 9.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
| | 10.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 다문화 수용도 | 1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1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
| | 1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 |
| | 1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다 | |
| | 1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 |

주: 원래 문항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이지만 선택항목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상기 문항을 '경계하지 않는다'로 변경하고 선택항목을 역코딩하였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코드북」.

[그림 3-1] 중2 학생의 사회인식 평균점수



자료: 필자 작성.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 (3-1)의 사회자본은 총 세 가지 대리 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첫째, 개인의 높은 사회인식 소유 여부(SOC1)를 바탕으로 청소년 i 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다닌 학생 중 SOC1이 1 값을 갖는 학생의 비율을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고, 그 비율은 각 학교별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둘째, 청소년 i 가 2011년 중학교 s 에 재학할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한 학생의 사회인식 수준 점수의 평균을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고, 그 평균점수는 15~60점 사이에 분포한다. 하지만 높은 사회인식 보유 여부나 사회인식 점수 측정 방법에서 모두 일정 부분 한계가 보인다. 첫 번째 높은 사회인식 소유 여부(SOC1)는 동일한 시·도에서 중학교를 다닌 학생 중 학교친구의 성향이 다른 학생 사이에 비행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에는 변이(variation)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생 답변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제2~6차 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사회자본 지표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교 동급생 비율을 사용한다. 다수의 선행연구(Bifulco, Fletcher and Ross, 2011; Bifulco, Fletcher, Oh and Ross, 2014)

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의 성향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이들이 가진 사회자본의 중요한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표 3-2〉 개인의 사회인식 수준 및 사회자본 측정방법

| | 변수명 | 변수설명 | 최소값 | 최대값 | 2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
|-------------------|---|--|---|--|----------------------|
| 개인의 사회인식 수준 | 높은 사회인식 소유여부 (SOC1) | 학생이 <표 3-1> 의 15개 문항 전 체에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답 했는지 여부 | 0 (낮은 의식 수준) | 1 (높은 의식 수준) | 0.06 (0.24) |
| | 사회인식 점수 (SOC2) | 학생의 <표 3-1> 의 문항에 대한 점 수의 합(① 전혀 그렇지 않다~④ 매우 그렇다) | 15 | 60 | 41.28 (6.51) |
| 사회적 자본 | 각 학교에서 높 은 사회인식이 있는 학생의 비 율 (SOC1 비율) | 같은 학교 동급생 의 SOC1의 비율 | 0 (의식수준이 높은 같은 학 교 동급생이 전혀 없음) | 1 (같은 학교 동급생 전체 가 의식수준 이 높음) | 0.06 (0.05) |
| | 학교친구의 사 회인 평균 점 수 (SOC2 평균) | 같은 학교 동급생 의 SOC2의 평균 점수 | 15 | 60 | 41.31 (1.40) |
| | 각 학교에서 어 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 생의 비율 | 각 학교에서 어머 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동급생의 비율 | 0 (어머니의 학 력이 대졸 이 상인 동급생 이 전혀 없음) | 1 (학교 동급생 전체의 어머 니가 최종학 력이 대졸 이 상임) | 0.49 (0.50) |

자료: 필자 작성.

〈표 3-3〉 비행 세부내용 및 학생 비행경험 여부

(단위: 명, %)

| | 중2 (2차) | 중3 (3차) | 고1 (4차) | 고2 (5차) | 고3 (6차) |
|----------------------|----------------|----------------|----------------|----------------|----------------|
| 담배 피우기 | 138 (6.19) | 135 (6.25) | 179 (8.76) | 217 (10.68) | 223 (11.15) |
| 술 마시기 | 103 (4.62) | 151 (6.99) | 258 (12.63) | 426 (20.97) | 540 (27.00) |
| 무단결석 | 67 (3.00) | 71 (3.29) | 65 (3.18) | 77 (3.79) | 125 (6.25) |
| 가출 | 56 (2.51) | 50 (2.31) | 35 (1.71) | 47 (2.31) | 18 (0.90) |
|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 140 (6.28) | 86 (3.98) | 74 (3.62) | 43 (2.12) | 30 (1.50) |
|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 69 (3.09) | 14 (0.65) | 14 (0.69) | 1 (0.05) | 1 (0.05) |
| 패싸움 | 16 (0.72) | 8 (0.37) | 6 (0.29) | 5 (0.25) | 1 (0.05) |
|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 68 (3.05) | 14 (0.65) | 15 (0.73) | 13 (0.64) | 10 (0.50) |
| 다른 사람 협박하기 | 21 (0.94) | 8 (0.37) | 3 (0.15) | 4 (0.20) | 4 (0.20) |
|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뺑기) | 35 (1.57) | 14 (0.65) | 4 (0.20) | 3 (0.15) | 3 (0.15) |
|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 15 (0.67) | 11 (0.51) | 7 (0.34) | 5 (0.24) | 1 (0.05) |
| 성관계 | 2 (0.09) | 5 (0.23) | 10 (0.49) | 30 (1.48) | 33 (1.65) |
| 성폭행이나 성희롱 | 4 (0.18) | 4 (0.20) | 1 (0.05) | 0 (0.00) | 0 (0.00) |
|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 - | 64 (2.96) | 48 (2.35) | 71 (3.50) | 39 (1.95) |
| 비행 학생 수(비율)* | 407 (18.25) | 332 (15.37) | 406 (19.87) | 525 (25.85) | 648 (32.40) |
| 전체 설문참여 학생 수 | 2,230 | 2,160 | 2,043 | 2,031 | 2,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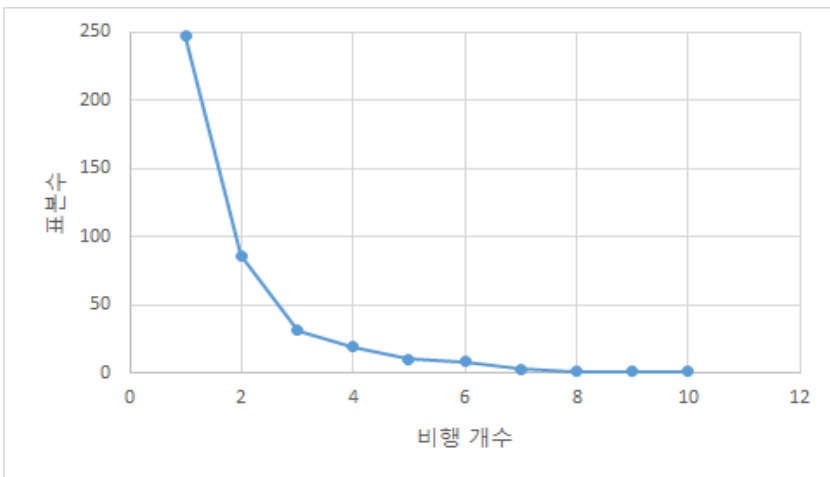
주: 분석표본에 대한 통계임. 비행 학생 수는 상기 첫 13개 비행(도박 제외)의 종류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학생을 의미함. 도박은 제2차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을 포함한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이 비행에 포함되며 비행에 포함되는 세부 행동과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중1 패널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인 2011년에는 전체 학생의 18.25%가 비행경험이 있으며, 이 비율은 고등학교 진로가 결정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15.37%로 다소 감소하나 고등학교 진학 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인 2015년에는 전체 학생의 32.40%가 비행경험이 있다. 학생들의 비행 여부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10.81%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38.15%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성관계 여부는 패널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인 시기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전체의 1.65%로 증가한다. 성관계와 무단결석을 제외한 기타 비행의 경험 여부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제3차 조사부터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가 조사항목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그림 3-2]는 2차 조사 분석표본 중 비행경험이 있는 총 407명의 중2 학생들이 <표 3-3>의 비행 중 몇 가지를 경험했는지를 나타낸다. 1가지

(그림 3-2) 중2 시절 경험한 비행 종류의 개수



자료: 필자 작성.

〈표 3-4〉 비행 측정방법

| | 변수설명 | 최소값 | 최대값 | 2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
|-------------------|-----------------------------|---------------|-----------|----------------------|
| 비행 여부 (이항변수) | <표 3>의 비행 경험(도박 제외)이 있는지 여부 | 0 (비행 안 함) | 1 (비행) | 0.18 (0.39) |
| 비행경험 개수 (연속변수) | <표 3>에서 경험이 있는 비행 종류의 개수 | 0 | 13 | 0.33 (0.81) |

자료: 필자 작성.

비행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11.1%인 247명, 2가지는 3.8%인 85명, 3가지는 1.4%인 31명, 4가지는 0.8%인 19명, 5가지 이상인 학생 수는 10명 이하이다. 비행을 하지 않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경험한 비행 종류의 개수의 평균은 0.33, 표준편차는 0.81이다.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은 이항변수와 연속변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항변수인 비행 여부의 경우 제2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도박을 제외한 13가지 비행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하면 1의 값, 아니면 0의 값을 갖고, 연속변수로는 비행경험 종류의 수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연속변수는 어떤 비행도 하지 않았으면 최소 0의 값을 가지고 13가지 종류의 비행을 모두 경험하면 최대 13의 값을 갖는다. 자료에는 연간 각 비행을 한 횟수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나 패싸움, 폭행, 협박, 뺑뺑기, 절도,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은 몇 번 비행을 저질렀는지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비행형태 중 몇 개를 경험했는지를 연속변수로 한다. 또한 상기 중대한 비행을 한 번 이상 경험한 학생도 매우 소수이다.

3. 기초통계

<표 3-5>는 제1차 조사 중1 패널의 학생 중 제2차 패널조사(중2)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기초통계이다. 제2차 조사에는 참여하였지만 제3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제4차 조사에는 참여하는 등 본 연구의 자료분석

〈표 3-5〉 제2차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2 학생(평균 13.9세)의 기초통계

(단위: 명, 개, %)

| | 구 분 | 분석표본 |
|---------------|---------|---------------|
| 높은 사회인식(SOC1) | 미보유 | 2,094(93.90) |
| | 보유 | 136(6.10) |
| 성별 | 여성 | 1,098(49.24) |
| | 남성 | 1,132(50.76) |
| 모친 대졸 여부 | 고졸 이하 | 1,391(62.38) |
| | 대졸 이상 | 839(37.62) |
| 중학교 소재지 | 서울특별시 | 219(9.82) |
| | 부산광역시 | 125(5.61) |
| | 대구광역시 | 151(6.77) |
| | 인천광역시 | 148(6.64) |
| | 광주광역시 | 91(4.08) |
| | 대전광역시 | 99(4.44) |
| | 울산광역시 | 106(4.75) |
| | 경기도 | 329(14.62) |
| | 강원도 | 109(4.89) |
| | 충청북도 | 122(5.47) |
| | 충청남도 | 90(4.04) |
| | 전라북도 | 109(4.89) |
| | 전라남도 | 108(4.84) |
| | 경상북도 | 154(6.91) |
| | 경상남도 | 142(6.37) |
| | 제주특별자치도 | 131(5.87) |
| 전체 학교 수 | | 78(100.00) |
| 전체 학생 수 | | 2,230(100.00) |

주: 2010년 1차조사에 참여한 중1 패널 전체 2,351명의 학생 중 2011년에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 3명, 2차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71명, 학교당 한 명의 학생만 조사된 31명을 제외한 2,246명에 대한 기초통계값임. 학생 1명의 학교 소재지 미상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에서 사용한 제2~6차 조사에 대한 학생 샘플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다. 제1~6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만을 샘플로 분석하는 경우 샘플 수가 적어져 같은 중학교 동급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각 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표본

이탈률도 매우 낮으며, 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의 성향이 매해 유사하다면(즉, 한 해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작위적이라면) 샘플의 미세한 이탈(attrition)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조사 기준 분석표본은 총 2,230명이다. 이 중 높은 사회인식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6.10%이며, 여성은 49.24%,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은 37.62%이다. 총 13개 지역 78개의 학교에 다닌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한 학교당 평균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29.92명(표준편차 5.36, 최소값 14, 최대값 40)이다.

제3절 분석결과

1. 학생 개개인의 사회인식 수준 및 사회자본과 비행 간의 관계

다음 <표 3-6>과 <표 3-7>은 제2차 조사(중2 시절) 기준 청소년의 사회인식 수준, 같은 학교 동급생의 사회인식 수준 또는 가족배경이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식 (3-1)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분석표본이 중학교 2학년 시절인 2011년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표 3-6>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비행경험 개수이므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3-7>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비행 여부이므로 로짓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비행이나 독립변수인 사회인식 수준 및 사회자본을 어떤 방식(이항변수 및 연속변수)으로 측정하든 개인의 사회인식 수준과 학교 동급생의 사회자본은 비행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학생 개개인이 높은 사회인식을 가지거나 학교 동급생의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의 경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학생이거나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일수록 비행경험이 적다. 성별과 비행은 청소년의 사회인식, 사회자본, 또는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비행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 <표 3-6> 및 <표 3-7>의 결과는 앞

〈표 3-6〉 2차년도(중2) 단년도 분석 : 회귀분석 추정치(종속변수 : 비행경험 개수)

| | 청소년의 사회인식과 비행의 관계 | | 사회자본과 비행의 관계 | | |
|--------|----------------------|----------------------|--------------------------------|------------------------------|-------------------------------|
| | (1) | (2) | (3) | (4) | (5) |
| | 사회인식 (연속변수) | 사회인식 (이항변수) | 동급생의 사회인식 평균점수 (연속변수) |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 (이항변수) | 동급생의 모친 대졸 여부 (이항변수) |
| 독립변수 | -0.008*** (0.003) | -0.191** (0.080) | -0.029* (0.015) | -1.036** (0.448) | -0.347** (0.146) |
| 여성 | -0.191*** (0.039) | -0.193*** (0.039) | -0.183*** (0.039) | -0.187*** (0.039) | -0.189*** (0.039) |
| 학부모 대졸 | -0.057 (0.040) | -0.062 (0.040) | -0.058 (0.041) | -0.063 (0.040) | -0.037 (0.042) |
| 표본 수 | 2,230 | 2,230 | 2,230 | 2,230 | 2,230 |

주: 1) 개인의 비행은 연속변수로 측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1 패널.

〈표 3-7〉 2차년도(중2) 단년도 분석 : 로짓모형 한계효과(종속변수 : 비행 여부)

| | 청소년의 사회인식과 비행의 관계 | | 사회자본과 비행의 관계 | | |
|--------|----------------------|----------------------|--------------------------------|------------------------------|-------------------------------|
| | (1) | (2) | (3) | (4) | (5) |
| | 사회인식 (연속변수) | 사회인식 (이항변수) | 동급생의 사회인식 평균점수 (연속변수) |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 (이항변수) | 동급생의 모친 대졸 여부 (이항변수) |
| 독립변수 | -0.002+ (0.001) | -0.064*** (0.027) | -0.008 (0.006) | -0.641*** (0.186) | -0.120** (0.062) |
| 여성 | -0.109*** (0.016) | -0.109*** (0.016) | -0.107*** (0.016) | -0.105*** (0.016) | -0.108*** (0.016) |
| 학부모 대졸 | -0.034** (0.016) | -0.035** (0.016) | -0.034** (0.016) | -0.035*** (0.016) | -0.027*** (0.017) |
| 표본 수 | 2,230 | 2,230 | 2,230 | 2,230 | 2,230 |

주: 1) 개인의 비행은 이항변수로 측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1 패널.

서 분석방법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개인의 사회인식과 사회자본의 상호관계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2.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표 3-8> 및 <표 3-9>는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 동급생의 사회인식 또는 가족배경이 중학교 3학년 이후의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1)열, (2)열, (3)열, (4)열은 각각 중3, 고1, 고2, 고3 시절의 비행에 대한 추정치이다. 전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지 않아 중2 시기 및 중3 시기의 학교 동급생의 성향은 유사할 것이므로 (1)열에 제시된 과거 학교 동급생의 성향이 중3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표 3-6> 및 <표 3-7>과 유사하게 인과관계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⁴⁾

<표 3-8> 및 <표 3-9>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이나 학부모의 최종학력처럼 강건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한다. 비행경험 개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독립변수가 중2 시절 학교 동급생 사회인식의 평균점수인 경우 중3의 비행에, 높은 사회인식이 있는 친구의 비율인 경우 고1의 비행에, 동급생 어머니의 최종학력인 경우 중3 및 고2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비행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수가 중2 시절 동급생의 사회인식이 평균점수인 경우 중3의 비행에, 동급생의 사회인식이 높은 경우 고1과 고2의 비행에 부(-)의 영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연속변수인 비행경험 개수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표 3-8>에서 과거(중2)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 변수의 고1 비행에 대한 추정치인 -0.952 는 학교친구 중에서 높은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p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비행경험 개수가 대략 1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비행 개수의 표준편차가 0.81(평균 0.33)이므로 이 추정치의 크기는 표준편차 한

4) 중학교 제6차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45%가 전학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경우와 전학 여부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주요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단위 이상 감소를 의미하므로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표 3-8>의 과거 동급생 모친 대졸 여부 변수의 추정치인 -0.290은 사회인식 여부 변수 추정치의 1/3 수준이다. 여성이면 비행경험 개수가 0.3~0.5개 정도 작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졸이면 비행경험 개수가 0.06~0.10개 작다.

<표 3-8> 중2 시절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중3~고3 비행에 미치는 영향 : 회귀분석 추정치

| | (1) 중3(3차) 비행경험 개수 | (2) 고1(4차) 비행경험 개수 | (3) 고2(5차) 비행경험 개수 | (4) 고3(6차) 비행경험 개수 |
|-----------------------|-----------------------------|-----------------------------|-----------------------------|-----------------------------|
| 과거 동급생의 사회인식 평균점수 | -0.025* (0.013) | -0.005 (0.014) | -0.013 (0.015) | -0.009 (0.015) |
| 여성 | -0.219*** (0.035) | -0.348*** (0.035) | -0.442*** (0.039) | -0.490*** (0.039) |
| 모친 대졸 | -0.073** (0.036) | -0.065* (0.036) | -0.086** (0.040) | -0.097** (0.038) |
| 과거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 | 0.437 (0.397) | -0.952** (0.400) | -0.374 (0.442) | -0.348 (0.437) |
| 여성 | -0.231*** (0.035) | -0.343*** (0.035) | -0.444*** (0.039) | -0.491*** (0.038) |
| 모친 대졸 | -0.081** (0.036) | -0.064* (0.036) | -0.088** (0.040) | -0.097** (0.038) |
| 과거 동급생의 모친 대졸 여부 | -0.257** (0.129) | -0.118 (0.132) | -0.290** (0.146) | -0.153 (0.143) |
| 여성 | -0.224*** (0.035) | -0.348*** (0.035) | -0.443*** (0.039) | -0.492*** (0.038) |
| 모친 대졸 | -0.059 (0.037) | -0.056 (0.038) | -0.065 (0.042) | -0.087** (0.040) |
| 표본 수 | 2,160 | 2,043 | 2,031 | 2,000 |

주: 1) 개인의 비행은 연속변수로 측정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1 패널.

<표 3-9>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이항변수인 비행 여부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3-9>에 제시된 과거(중2)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 변수의 고1, 2 시절 비행에 대한 추정치인 -0.32는 학교친구 중에 높은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p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비행확률이 0.32~0.33%p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행 여부의 표준편차가 0.24(평균 0.06)이므로 0.32~0.33%p 감소라는 추정치 역시 표

<표 3-9> 중2 시절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중3~고3 비행에 미치는 영향: 로짓모형 한계효과

| | (1) 중3(3차) 비행 여부 | (2) 고1(4차) 비행 여부 | (3) 고2(5차) 비행 여부 | (4) 고3(6차) 비행 여부 |
|--------------------|------------------------|------------------------|------------------------|------------------------|
| 과거 동급생의 사회인식 평균점수 | -0.010* (0.006) | 0.001 (0.007) | -0.004 (0.008) | 0.005 (0.009) |
| 여성 | -0.105** (0.015) | -0.187*** (0.017) | -0.228*** (0.019) | -0.267*** (0.021) |
| 모친 대졸 | -0.039*** (0.015) | -0.038** (0.017) | -0.047** (0.020) | -0.062*** (0.022) |
| 과거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 | -0.036 (0.170) | -0.328* (0.194) | -0.323+ (0.221) | -0.204 (0.247) |
| 여성 | -0.110*** (0.015) | -0.184 (0.017) | -0.227*** (0.019) | -0.264*** (0.022) |
| 모친 대졸 | -0.041*** (0.015) | -0.037** (0.017) | -0.048** (0.020) | -0.061** (0.022) |
| 과거 동급생의 모친 대졸 여부 | -0.056 (0.056) | -0.016 (0.064) | -0.072 (0.074) | -0.059 (0.083) |
| 여성 | -0.109*** (0.015) | -0.186*** (0.017) | -0.229*** (0.019) | -0.264*** (0.020) |
| 모친 대졸 | -0.037** (0.015) | -0.036** (0.018) | -0.042** (0.021) | -0.057** (0.022) |
| 표본 수 | 2,160 | 2,043 | 2,031 | 2,000 |

주: 1) 개인의 비행은 이항변수로 추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1 패널.

준편차 한 단위보다 큰 상당한 영향을 의미한다.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어머니 교육수준 효과의 20배 정도로 크다. 여성이면 비행을 할 확률이 19~27%p 낮고, 어머니가 대졸 학력이면 비행을 할 확률이 4~6%p 낮다. 비행 여부에 대한 성별의 영향은 어머니 교육수준 영향의 5배 정도이다.

학교 동급생의 특성을 이용해 측정된 사회자본의 추정치(영향)의 크기는 사회자본과 비행의 측정방법(이항 혹은 연속변수)에 따라 다소 다르고 그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음(-)의 부호를 지닌다. 이는 높은 사회자본이 비행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건하지 못한 결과는 변수 측정방법상의 문제와 동일 시·도 내 학교 간의 작은 학생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석방식 때문일 것이다. 자료의 한계상 동급생의 높은 사회인식 여부와 같은 변수는 같은 학급에서 매일 교류하는 친구가 아닌 단순히 같은 중학교의 동급생을 바탕으로 추정되어 학교친구의 사회자본이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교류하는 친구가 아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의 성향이나 가족배경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단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실제로 학교에서 교류하는 학교친구들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임을 의미한다.

제4절 소 결

본 장은 학생들의 사회인식 수준과 비행을 살펴보고 학교 내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학교 동급생의 사회인식 수준과 학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로 측정한 중학생의 사회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다.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높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학교에 사회인식 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거나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을수록 청소년 개개인의 비행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중2 시절 학교환경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된다는 분석결과는 사회자본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인 청소년에게 친구의 사회인식 수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학교 동급생 어머니의 최종학력 수준이 주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성향은 학교의 정규과목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사의 수업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업 외 활동, 비정규과목 구성, 학교 밖의 학생들의 여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는 수업이나 학생들의 지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태도가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사회자본이 현재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주변환경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점(simultaneous causation)을 일부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학생들이 각 중학교를 선택하여 들어간다는 점(selection bias)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이 자신과 유사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닌다면 이 학생의 행동이 바른 것이 본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학교친구 성향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가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상기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배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결정되는 지역에서는 상기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친구의 영향과 개인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학교친구의 독립적인 영향보다 더 크게 측정(upward bias)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낮은 사회인식 수준이나 학교마다 상이한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러한 요소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초기 학교친구의 성향이나 배경이 고등학교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비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행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만약 그 비행행위를 추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낙인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에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나 지역사회 등 주변환경이 아닌 가족환경이다. 하지만 공공정책이 학생의 가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가족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거주지에 따라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자본의 필수요소는 구성원 간의 신뢰이며 신뢰는 교류(네트워크)가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회구성원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자본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제4장 청소년기 비행과 노동시장 성과

본 장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전체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현재 가용한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3장의 분석에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최신자료인 2016년(제7차) 조사 대상의 평균연령은 19세로 표본의 70% 이상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10% 정도만이 학생이 아닌 임금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사회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바, 제4장에서는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절은 청소년기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제2절은 분석자료를 설명하고, 비행 등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과 분석방법인 성향점수매칭 등을 설명한다. 제3절은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관찰가능한 개인적 특성과 초기 및 중기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 후, 비행이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4절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1절 선행연구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진하다. 이에 청소년기 비행과 이후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해외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Tanner, Davies, and O'Grady(1999)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비행경험이 최종학력 및 직업의 사회적 지위(occupational status, Duncan Socio-economic Index를 바탕으로 계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혐의의 비행의 주된 구성요소인 범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다. 1997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의 첫 조사 대상자 중 2006년 조사에 참여한 남성 표본을 활용하여 젊은 성인 남성의 범죄 전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분석한 Richey(2014)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범죄 전력이 있는 성인 남성은 연평균 임금이 10~14% 정도 낮다. 즉 청소년기의 범죄는 향후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Allgood, Mustard, and Warren, 2007; Richey, 2014), 30세 전후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ealy, Knapp, and Farrington, 2004). 반면 Nagin and Waldfogel(1995)은 청년층의 전과가 취업 안정성을 낮추는 반면 임금은 오히려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25세 이전까지만 나타나며 30세 이후부터는 반대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agin and Waldfogel, 1998). Bushway(1998)에 따르면 체포 경험도 일자리 유지기간을 단축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요약하면 다수의 해외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으로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 전력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⁵⁾

5) Richey(2014)는 청소년 비행을 전과 여부(conviction)로, Allgood, Mustard, and Warren(2007)은 기소(charge) 혹은 전과 여부로, Healy, Knapp, and Farrington(2004)은 10~16세 사이 전과 여부로, Nagin and Waldfogel(1995)은 참여자가 보고한 범죄성(self-reported criminality; 재산범죄, 폭력성 등) 및 전과 여부로, Nagin and Waldfogel

청소년기 비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경로는 비행과 학생의 최종학력 관계일 것이다. 다수의 해외연구는 청소년기 비행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고등학교 졸업 가능성 및 최종학력이 낮음을 밝혔다(Hirschfield, 2009; Maguin and Loeber, 1996; Tanner, Davies, and O'Grady, 1999; Thornberry, Moore, and Christenson, 1985).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하며, 구체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가 비행 친구와의 관계 형성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비행행동을 유발하며(이성식·전신현, 2009; 이종원, 2013)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므로(정이화, 2015) 학업 성취도와 비행은 비행친구 접촉을 매개로 양방향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은 학업성취도의 저하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쳐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자본 측면 이외에도 비행은 사회적응력을 매개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와의 유대감 및 애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반사회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수감 경험은 향후 취업 및 결혼 등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를 더욱 제한한다(Sampson and Laub, 1997). 이와 마찬가지로 콕금주·김하연·윤진(1991)은 비행 청소년일수록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고, 김현수·김현실(2001)에 따르면 초범 비행 청소년에 비하여 재범 비행 청소년의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비행행동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적응성 역시 낮다. 반사회적 성향은 직업의 지속, 취업 기회의 제한, 노동시장 진입 실패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비행빈도가 많을수록 향후 성년기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8)은 첫 전과 여부로, Bushway(1998)는 성인으로서 첫 체포 경험으로, Tanner, Davier, and O'Grady(1999)는 비행 등급(학교 무단결석 빈도, 마약 사용 및 음주 빈도, 재산범죄 빈도, 폭력성 빈도, 기소 및 전과 등의 여부에 관한 항목의 응답을 표준화하여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제2절 분석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데이터를 이용한다. 비행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비행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노동패널 개인용 데이터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1998년부터 시작된 노동패널조사는 노동시장 관련 상세한 지표를 포함하는 국내 최대의 패널조사이다. 노동패널 본 조사는 비행 관련 설문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2006년에 실시한 제9차 패널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는 15~35세 청년의 중·고등학교 비행에 관한 상세한 설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 휴학 경험, 지각, 무단 결석, 훈계·근신·징계, 폭행, 절도, 집단따돌림, 흡연, 음주 등 다양한 비행경험 여부 및 빈도를 조사한다.

따라서 본 장은 2006년에 실시한 제9차 및 2015년에 실시한 제18차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2006년(제9차)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비행이 초기(18~35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15년(제18차)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제9차 청년층 부가조사 참여자의 청소년기 비행이 9년 후(27~44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실증분석 전략

가. 비행의 측정

비행 변수는 제3장과 유사하게 구축한다. 중학교 시기의 비행경험을 바탕으로 이항변수인 비행 여부는 <표 3-1>의 비행의 9가지 종류 중 단 한 가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경우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다. 연속변수인

〈표 4-1〉 비행 변수 구성

| | 0 | 한두 번 | 서너 번 | 다섯 번 이상 |
|------------|---|------|------|---------|
| 휴학 경험 | 0 | 1 | 2 | 3 |
| 지각(한 달 기준) | 0 | 1 | 2 | 3 |
| 무단결석 | 0 | 1 | 2 | 3 |
| 훈계, 근신, 징계 | 0 | 1 | 2 | 3 |
| 폭력 | 0 | 1 | 2 | 3 |
| 절도 | 0 | 1 | 2 | 3 |
| 집단따돌림 | 0 | 1 | - | - |
| 흡연 | 0 | 1 | 2 | 3 |
| 음주 | 0 | 1 | 2 | 3 |

주: 1) 집단따돌림은 횟수가 아니라 경험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되어 연속변수일 때 0 혹은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처리함.

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청년층 부가조사 문 44 (중학교 시절 비행) 또는 문 45(고등학교 시절 비행)를 바탕으로 함.

3) 이성친구 교제는 비행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청년층 부가조사.

비행은 <표 4-1>의 9가지 비행 중 각 비행의 횟수에 따라 없으면 0, 한두 번이면 1, 서너 번이면 2, 다섯 번 이상이면 3의 값을 갖는 것으로 처리한 수치의 총 합계이다. 비행 중 집단따돌림만 '경험이 있음 또는 없음'으로 설문항이 구성되어 이 경우 경험이 있으면 0, 없으면 1의 값을 갖도록 처리하였다. 따라서 연속변수인 비행은 최소 0부터 최대 $25(3*8+1*1)$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나. 분석표본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2006년(제9차) 청년층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이었던 2006년 기준 만 35세 이하인 1971년 이전 출생자이다. 이 부가조사는 2006년에 만 15세 이상이었던 1991년생부터 만 35세 이하인 1971년생까지를 조사하였으나 만 15세, 16세 및 17세는 최종학력이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서 만 18세 미만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4-2>는 분석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2006년 기준 평균 연령은 학생을 포함한 경우 27.73세, 학생을 제외하면 29.10세이다. 2006년 기준 전체 분석표본 중 학생은 19%, 여성은 52%이다. 2006년 표본 중 학생이 19%이므로 2006년 초기 노동시장 성과 분석 시에는 학생을 제외한다. 2006년 당시 학생이었던 경우에도 청소년기 비행 여부는 조사되었으므로 2015년의 중기 노동시장 성과의 분석 시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2006년 분석표본 중 3세, 9세, 또는 14세 때 부모의 직장 위치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사망, 이혼, 장기요양, 별거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은(이하 부모 비동거) 비율은 8%이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비율은 전체의 57%이다. 2006년 분석표본의 25%는 중학교 시절 비행의 경험이 있으며 비행빈도는 0.55회이다. 비행 연속변수의 표준편차는 중학교 시기의 경우 1.38인데 이 변수가 최대 25의 값을 가질 수 있는바,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크지 않기 때문에 비행을 이행변수로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분석표본의 평균 나이가 29.10세일 때 취업자 비율은 63%이고, 근로자의 77%가 상용직이다. 임금근로자의 79%는 정규직이고 이들의 평균임금은 164.77만 원이다.

2015년 분석표본의 평균 나이는 37.29세이다. 이 중 여성은 53%, 부모와 어린 시절 비동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8%, 부모가 고졸 이하인 비율은 전체의 53%, 중학교 시기 비행을 경험한 비율은 25%, 빈도는 0.55회로 2006년 분석표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대 후반인 2006년 분석표본 중 취업자 비율은 63%이나 30대 후반인 2015년 분석표본의 취업자 비율은 74%로 상당히 높아진다. 이와 함께 세후 월평균 임금도 2005년 164.77만 원에서 2015년 262.85만 원으로 상당히 증가한다. 하지만 상용직 비율은 20대 후반 77%에서 30대 후반에는 71%로 오히려 감소하고 정규직 비율은 20대 후반 79%에서 30대 후반 77%로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여성이 결혼 후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결과로 예상된다.

〈표 4-2〉 분석표본의 기초통계량

| | 2006년 기준 | | 2015년 기준 (분석표본) |
|-----------------|---------------|-----------------|--------------------|
| | 학생 포함 (전체) | 학생 제외 (분석표본) | |
| 학생 여부 | 0.19(0.39) | - | - |
| 나이(세) | 27.73(5.01) | 29.10(4.22) | 37.29(4.86) |
| 여성 여부 | 0.52(0.50) | 0.53(0.50) | 0.53(0.50) |
| 부모 비동거 여부 | 0.08(0.27) | 0.08(0.28) | 0.08(0.26) |
| 부모 고졸 이하 여부 | 0.48(0.50) | 0.57(0.49) | 0.53(0.50) |
| 비행경험 여부 | 0.24(0.43) | 0.25(0.43) | 0.25(0.43) |
| 비행빈도 | 0.53(1.31) | 0.55(1.38) | 0.55(1.34) |
| 취업 여부 | 0.53(0.50) | 0.63(0.48) | 0.74(0.44) |
| 표본 수 | 3,813 | 3,079 | 2,468 |
| 근로자 | | | |
| 상용직 여부 | 0.75(0.43) | 0.77(0.42) | 0.71(0.45) |
| 정규직 여부 | 0.78(0.42) | 0.79(0.41) | 0.77(0.42) |
| 월평균 임금(만 원, 세후) | 162.72(79.11) | 164.77(78.75) | 262.85(136.78) |

주: 1) 각 수치는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변수명이 여부로 끝나는 경우 이항변수로 각 수치는 전체 표본에서 해당하는 비율은 0~1 범위에서 표현함.

3) 표본 수는 분석에 사용된 최대 수를 의미하며 각 변수의 실측치에 따라 표본 수에 편차가 있음.

4) 취업 여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상용직 여부는 자료가 파악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은 임금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다. 분석모형

본 장의 목적은 청소년기 비행이 청년층의 초기(18~35세) 및 중기(27~44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식(4-1)로 추정될 수 있다.

$$y_{i,t} = \beta_0 + \beta_1 \text{비행}_{i,t-n} + \beta_2 \text{연령}_{i,t} + \beta_3 F_i + \beta_4 X'_i + \epsilon_i \quad (4-1)$$

$y_{i,t}$ 는 개인 i 의 t 년도(2006년 또는 2015년) 취업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등이다. 비행 $_{i,t-n}$ 은 i 의 중학교 시절 비행에 대한 이항변수로 한 가지의 비행이라도 경험하였으면 1, 아니면 0이다. 연령 $_{i,t}$ 는 i 의 t 년도 연령이며, F_i 는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X'_i 는 통제변수 벡터로 어린시절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부모 모두 고졸 학력인지 여부에 대한 이항변수와 출생지역에 대한 이항변수를 가족배경의 대리변수로 포함한다. ϵ_i 는 오차항이다. 분석시 개인이 선택 불가능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개인의 관측불가능한 성향이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변수인 y 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Cov(\text{비행}, \epsilon) = 0$ 의 가정이 만족하지 않아 β_1 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비행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개인성향 및 가족배경 등이 매우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비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상이한 특징이 미치는 영향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Rosenbaum and Rubin (1983)과 Rubin(1973, 1974)을 기반으로 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이다. 이 방법은 관찰 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계산된 비행 확률(성향점수)이 유사하지만 비행경험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효과를 비교한다.

이와 같은 논의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au = E\{Y_{1,i} | \text{비행}_i=1, X_s\} - E\{Y_{0,i} | \text{비행}_i=1, X_s\} \quad (4-2)$$

상기 식 (4-2)에서 비행 $_i=1$ 은 개인 i 가 청소년기($t-n$)에 비행을 한 경

우, 비행_i=0은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성별, 부모학력 등 개인의 관측 가능한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 Xs에 의해 결정된다. Y_{1,i}는 i가 청소년기에 비행을 한 경우의 초기 또는 중기(t) 노동시장 성과이며 Y_{0,i}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성과이다. 식 (4-2)의 τ는 처치집단에 대한 처치의 평균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로 두 경우에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이다. 하지만 E{Y_{0,i}|비행_i=1, Xs}는 비행을 한 i가 비행을 하지 않을 경우의 가상의 노동시장 성과이므로 실제 관측자료가 없다.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자의 가상적인 노동시장 성과가 매칭변수인 Xs로 추정된 성향점수는 같지만 비행을 하지 않은 자와 같다면, 즉 E{Y_{0,i}|비행_i=1, Xs}가 E{E{Y_{0,i}|비행_i=0, Xs|비행_i=1}}이라면, 이 차이는 비행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식 (4-3)과 같은 방법으로 비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tau = E\{Y_{1,i}|\text{비행}_i=1, Xs\} - E\{E\{Y_{0,i}|\text{비행}_i=0, Xs|\text{비행}_i=1\}\} \quad (4-3)$$

성향점수는 연속변수라서 성향점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두 개인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매칭기법을 통해 가장 적합한 비교대상을 선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관측치의 결과를 비교하는 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이용하였고, nearest neighbor는 3개로 한다.

제3절 분석결과

본 절은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관찰 가능한 개인적 특성과 초기 및 중기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 후, 제2절의 식 (4-1)을 바탕으로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식 (4-3)의 성향점수매칭을 바탕으로 한 비행의 인과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

시한다.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비행이 학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한다.

1. 기초통계

<표 4-3>의 패널 A는 전체 표본의 기초통계를, 패널 B는 근로자 표본의 기초통계를 청소년기 비행경험에 따라 구분하고 그 차이가 T-test 검정결과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이다. 각 통계는 2006년과 2015년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패널 A의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할 때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비행경험 집단의 경우 미경험 집단에 비해 여성 비율이 10~11%p 낮고, 부모와 비동거 경험이 있는 비율은 4~5%p 높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비율은 4%p 낮으며, 본인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10~12%p 낮다. 또한 비행경험 집단의 취업자 비율은 비행 미경험 집단에 비해서 2006년에는 4%p 높고 2015년에는 7%p 더 높다.

패널 B의 근로자 표본으로 한정된 경우에도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평균적으로 비행경험 집단의 여성 비율이 8~11%p 낮고, 부모와 비동거 경험이 있는 비율은 5%p 높으며, 본인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13~14%p 낮다. 전체 표본과는 달리 근로자 표본에서는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 간 부모의 학력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비행경험 집단의 근로자는 미경험 집단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4~6%p,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5%p 낮고, 월평균 임금은 2006년 기준 10.57만 원 더 낮다.

<표 4-3>의 T-test 검정결과에 따르면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은 관찰 가능한 개인적인 특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모든 노동시장 지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초통계량의 검증 결과, 제2절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가 비행이 아니라도 노동시장 지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3〉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개인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 2006년 기준 | | | 2015년 기준 | | |
|---------------------|-------------------|-------------------|-------------|--------------------|--------------------|-------------|
| | 비행 경험 (A) | 비행 미경험 (B) | 차이 (A-B) | 비행 경험 (A) | 비행 미경험 (B) | 차이 (A-B) |
| 패널 A: 전체 표본 | | | | | | |
| 나이(세) | 28.91 (4.36) | 29.16 (4.17) | -0.24 | 37.23 (4.86) | 37.31 (4.86) | -0.07 |
| 여성 | 0.45 (0.50) | 0.56 (0.50) | -0.11*** | 0.45 (0.50) | 0.55 (0.50) | -0.10*** |
| 부모 비동거 | 0.12 (0.33) | 0.07 (0.26) | 0.05*** | 0.11 (0.31) | 0.06 (0.25) | 0.04*** |
| 부모 고졸 이하 | 0.54 (0.50) | 0.58 (0.49) | -0.04** | 0.50 (0.50) | 0.54 (0.50) | -0.04* |
| 본인 대졸 | 0.22 (0.41) | 0.32 (0.47) | -0.10*** | 0.28 (0.45) | 0.41 (0.49) | -0.12*** |
| 취업자 | 0.66 (0.47) | 0.62 (0.49) | 0.04** | 0.79 (0.41) | 0.72 (0.45) | 0.07*** |
| 패널 B: 근로자 표본 | | | | | | |
| 나이(세) | 29.37 (4.11) | 29.48 (3.92) | -0.12 | 37.33 (4.82) | 37.30 (4.91) | 0.02 |
| 여성 | 0.35 (0.48) | 0.46 (0.50) | -0.11*** | 0.36 (0.48) | 0.44 (0.50) | -0.08*** |
| 부모 비동거 | 0.12 (0.33) | 0.07 (0.26) | 0.05*** | 0.12 (0.32) | 0.07 (0.25) | 0.05*** |
| 부모 고졸 이하 | 0.56 (0.50) | 0.60 (0.49) | -0.03 | 0.50 (0.50) | 0.53 (0.50) | -0.03 |
| 본인 대졸 | 0.25 (0.43) | 0.38 (0.48) | -0.13*** | 0.30 (0.46) | 0.45 (0.50) | -0.14*** |
| 상용직 | 0.74 (0.44) | 0.78 (0.41) | -0.04* | 0.66 (0.47) | 0.73 (0.44) | -0.06*** |
| 정규직 | 0.79 (0.02) | 0.79 (0.40) | -0.01 | 0.73 (0.44) | 0.78 (0.42) | -0.05* |
| 월평균 임금 (만 원, 세후) | 156.98 (81.22) | 167.55 (77.70) | -10.57** | 255.15 (131.00) | 265.64 (138.77) | -10.50 |

주: 1) 각 수치는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2006년 당시 학생인 자는 2006년 초기 성과분석 시에는 표본에서 제외되지만 2015년 중기 성과분석 시에는 포함됨.

3)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은 임금근로자에 한함.

4) *, **, ***은 t-test 결과가 통계적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2. 비행과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

<표 4-4>~<표 4-7>은 식 (4-1)을 바탕으로 비행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변수는 <표 4-3>의 교육수준(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관련 이항변수와 취업, 상용직 및 정규직을 의미하는 이항변수와 월평균 임금이다. 분석 시 결과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에는 로짓모형으로, 임금과 같이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다. 각 결과변수는 2006년 및 2015년을 기준으로 추정한다. 통제변수로는 <표 4-3>의 연령, 여성, 부모 고졸 및 부모 비동거의 이항변수와 함께 거주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더미 변수를 사용한다. 신규 응답자 등의 일부 표본을 제외하고는 출생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비행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특징을 통제하기 위해 출생지역 또는 성장지역의 대리변수로 거주지역을 통제하지만, 현재 거주지역이 성장한 지역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표 4-4>~<표 4-7>에 제시된 결과는 비행의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성의 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비행이 미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행과 결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한다.

<표 4-4> 및 <표 4-5>는 중학교 시절의 비행과 초기(18~35세, 평균 29세) 및 중기(27~44세, 평균 37세) 학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의 (1)열, (2)열 및 (3)열은 연령, 성별 및 가족배경(부모와의 비동거 및 부모 모두 고졸학력인지 여부)을 통제한 후의 비행과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간의 관계를 각각 제시한다. 초기 학력과 중기학력을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2006년의 학력이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시에 2006년 당시 학생인 자를 제외하여 표본이 상이하며, 동일 표본의 경우에도 이들의 최종학력이 변동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연령, 성별, 가족배경 및 거주지역을 통제하는 경우 중학교 시절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비율이 12.3%p 높지만 4년제 대졸 이상인 비율은 10.2%p 더 낮다. 단,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 사이에 2년

제 대졸 이상인 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또한 다른 변수를 통제한 경우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비율이 높지만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낮다. 이 결과는 이 변수들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높아지는 대학 진학률을 반영하고, 다른 변수를 통제한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2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4.7%p 높고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2.9%p 낮은 것은 성별 대학 진학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 4-4>의 초기 및 <표 4-5>의 중기 교육수준과 비행의 관계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비행과 학력의 관계는 초기에 비해 중기 학력에서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2006년 표본 중 일부가 2015년 이탈하였고, 2006년 기준 학생인 집단은 2006년 학력 분석 시에는 제외되었으나 2015년 분석 시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표본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을 제외한 상태에서 초기(2006년) 교육수준을 분석하였고 표본의 평균연령이 29세였기 때문에 이들의 학력은 대부분의 경우 최종학력으로 2015년에도 학력수준에 큰 변동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종학력은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표 4-4>와 <표 4-5>에 제시된 비행과 교육수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행과 노동시장 성과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4-4〉 중학교 시기 비행과 초기 교육수준의 관계

| | (1) 고졸 이하 | (2) 2년제 대졸 | (3) 4년제 대졸 이상 |
|--------------|----------------------|---------------------|----------------------|
| 비행 (이항변수) | 0.123*** (0.020) | -0.028 (0.018) | -0.102*** (0.020) |
| 연령 | -0.015*** (0.002) | -0.005** (0.002) | 0.020*** (0.002) |
| 여성 | -0.018 (0.018) | 0.047*** (0.016) | -0.029* (0.016) |
| 부모 비동거 | 0.234*** (0.033) | -0.070** (0.031) | -0.209*** (0.037) |
| 부모 고졸 이하 | 0.067*** (0.020) | 0.031* (0.018) | -0.091*** (0.018) |
| 표본 수 | 3,077 | 3,077 | 3,077 |

주: 1) 결과변수의 추정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효과임.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17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 이항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표 4-5〉 중학교 시기 비행과 중기 교육수준의 관계

| | (1) 고졸 이하 | (2) 2년제 대졸 | (3) 4년제 대졸 이상 |
|--------------|---------------------|----------------------|----------------------|
| 비행 (이항변수) | 0.131*** (0.021) | -0.012 (0.020) | -0.126*** (0.023) |
| 연령 | 0.010*** (0.002) | -0.010*** (0.002) | -0.001 (0.002) |
| 여성 | 0.048** (0.019) | 0.015 (0.018) | -0.062*** (0.019) |
| 부모 비동거 | 0.239*** (0.035) | -0.047 (0.036) | -0.242*** (0.042) |
| 부모 고졸 이하 | 0.096*** (0.022) | 0.038* (0.022) | -0.129*** (0.022) |
| 표본 수 | 2,467 | 2,467 | 2,467 |

주: 1) 결과변수의 추정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효과임.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17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 이항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표 4-6〉 중학교 시기 비행과 초기 노동시장 지표의 관계

| | (1) 취업 | (2) 상용직 | (3) 정규직 | (4) 월평균 임금 |
|--------------|----------------------|---------------------|----------------------|-----------------------|
| 비행 (이항변수) | 0.021 (0.020) | -0.041* (0.021) | -0.014 (0.023) | -12.155*** (3.897) |
| 연령 | 0.011*** (0.002) | -0.007** (0.003) | 0.010*** (0.003) | 7.082*** (0.488) |
| 여성 | -0.251*** (0.015) | -0.029 (0.020) | -0.030 (0.021) | -34.825*** (3.532) |
| 부모 비동거 | -0.008 (0.031) | -0.010 (0.032) | -0.090*** (0.031) | -20.250*** (6.059) |
| 부모 고졸 이하 | 0.002 (0.019) | 0.049** (0.021) | 0.014 (0.022) | -3.717 (3.815) |
| 표본 수 | 3,078 | 1,955 | 1,726 | 1,721 |

주: 1) 결과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추정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효과이며, 연속변수(임금)인 경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치임.

2)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은 임금근로자에 한함.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4) 17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 이항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표 4-7〉 중학교 시기 비행과 중기 노동시장 지표의 관계

| | (1) 취업 | (2) 상용직 | (3) 정규직 | (4) 월평균 임금 |
|--------------|----------------------|----------------------|----------------------|-----------------------|
| 비행 (이항변수) | 0.027 (0.020) | -0.076*** (0.023) | -0.060** (0.024) | -16.240** (7.383) |
| 연령 | -0.0001 (0.002) | -0.014*** (0.003) | -0.005* (0.003) | 5.341*** (0.804) |
| 여성 | -0.335*** (0.016) | -0.089*** (0.021) | -0.144*** (0.021) | -97.596*** (6.590) |
| 부모 비동거 | 0.024 (0.033) | -0.037 (0.039) | -0.113*** (0.037) | -33.232** (12.111) |
| 부모 고졸 이하 | 0.001 (0.020) | -0.001 (0.025) | -0.003 (0.026) | -10.774 (8.018) |
| 표본 수 | 2,467 | 1,849 | 1,525 | 1,522 |

주: 1) 결과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추정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효과이며, 연속변수(임금)인 경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치임.

2)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은 임금근로자에 한함.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4) 17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 이항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3. 비행이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PSM 분석

앞에서 살펴본 결과는 분석방법상 비행의 내생성과 선택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행과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식 (4-3)의 성향점수매칭(PSM)을 바탕으로 한 분석방법도 내생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관찰가능한 변수를 바탕으로 비행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최대한 극복하여 비행의 선택적 편의를 일부 제거할 수 있다. <표 4-9>는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비행이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상부 패널과 하부 패널은 각각 초기(18~35세, 평균 29세) 및 중기(27~44세, 평균 37세)에 관찰한 비행이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ATT)를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 비행은 초기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일 확률을 14.1%p 더 높이는 반면,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확률을 4.2%p,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확률을 9.8%p 더 낮춘다. 이러한 비행경험 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학력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교육수준은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고 정규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행이 초기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표 4-8>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행은 초기 노동시장의 상용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비행은 초기 취업률이나 정규직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을 5.8%p, 월평균 임금을 14.91만 원 낮춘다.

비행이 초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 비행은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일 확률을 14.6%p 높이지만 4년제 대졸 이상일 확률도 낮춘다. 2년제 대졸 이상일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초기 노동시장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청소년기 비행은 취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용직일 확률을 8.3%p,

정규직일 확률을 8.2%p 낮추고 월평균 임금도 16.79만 원 낮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경험한 사람이 향후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낮다면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비행이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기와 중기의 분석표본이 달라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기 노동시장 지표 분석 시에 청소년기 비행은 정규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중기에는 정규직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정착할 시기의 고용의 질에 청소년기 비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8〉 중학교 시기 비행이 교육 및 노동시장 지표에 미치는 영향

| | | 비행경험 집단 | 비행미경험 집단 | ATT | 표본 수 |
|-------------------|-----------|---------|----------|-----------|-------|
| 초기 (평균 29세) | 고졸 이하 | 0.565 | 0.425 | 0.141*** | 3,077 |
| | 2년제 대졸 이상 | 0.215 | 0.257 | -0.042* | 3,077 |
| | 4년제 대졸 이상 | 0.220 | 0.318 | -0.098*** | 3,077 |
| | 취업 | 0.657 | 0.657 | 0.0004 | 3,078 |
| | 상용직 | 0.741 | 0.799 | -0.058** | 1,955 |
| | 정규직 | 0.786 | 0.818 | -0.032 | 1,726 |
| | 월평균 임금 | 156.98 | 171.88 | -14.91** | 1,721 |
| 중기 (평균 37세) | 고졸 이하 | 0.470 | 0.324 | 0.146*** | 2,467 |
| | 2년제 대졸 이상 | 0.247 | 0.248 | -0.001 | 2,467 |
| | 4년제 대졸 이상 | 0.283 | 0.429 | -0.146*** | 2,467 |
| | 취업 | 0.787 | 0.777 | 0.009 | 2,467 |
| | 상용직 | 0.665 | 0.748 | -0.083*** | 1,849 |
| | 정규직 | 0.731 | 0.813 | -0.082** | 1,525 |
| | 월평균 임금 | 255.15 | 271.93 | -16.79* | 1,522 |

주: 1)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매칭변수는 연령, 여성, 부모 비동거, 부모 고졸 이하 학력, 17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이항변수임.

3)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은 임금근로자에 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청소년기에 비행 경험을 경험한 집단과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특성이나 성향이 상당히 상이하며 이러한 특성은 비행이 아니더라도 학력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기 비행 여부만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표 4-8>의 성향점수매칭(PSM)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를 볼 때 개인의 관측 가능한 특성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도 비행은 취업을 제외한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비행은 학력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비행이 개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가 학력인 것을 알 수 있다.

4.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상호관계

제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변인의 특성을 대리변수로 한 낮은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을 높이고, 제4장의 분석결과는 청소년기 비행이 최종학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비행을 매개로 하는 경우 청소년기 사회자본과 향후 노동시장 성과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료상의 한계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노동패널의 제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선택하는 설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신뢰도의 평균은 4.45점이며 표준편차 1.23이다. 따라서 이 신뢰 관련 응답을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제한적이거나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 관계는 과거의 신뢰도가 미래의 노동시장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2015년의 신뢰도가 2015년의 노동시장 지표와 갖는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개개인이 현재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현재 타인에게 갖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성공적으로 취직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좋은 곳에서 거주한다면 좋은 직장 동료나 이웃들과 지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9>는 <표 4-4>~<표 4-7>에서 사용한 동일한 분석표본과 식 (4-1)의 동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속변수인 신뢰와 중기 노동시장 성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9>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취업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및 임금과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이 결과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표 2-6>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4-9>의 결과는 같은 연도의 변수들과의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역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해, 인과관계의 해석처럼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취업자, 상용직 및 정규직이고

<표 4-9> 타인 신뢰와 노동시장 성과

| | (1) 취업 | (2) 상용직 | (3) 정규직 | (4) 월평균 임금 |
|----------|----------------------|----------------------|----------------------|-----------------------|
| 신뢰 | 0.026*** (0.006) | 0.022*** (0.009) | 0.022** (0.009) | 9.009*** (2.713) |
| 연령 | -0.0002 (0.002) | -0.014*** (0.003) | -0.004* (0.003) | 5.459*** (0.768) |
| 여성 | -0.342*** (0.016) | -0.086*** (0.021) | -0.142*** (0.021) | -98.375*** (6.542) |
| 부모 비동거 | 0.036 (0.033) | -0.047 (0.038) | -0.120*** (0.036) | -34.943*** (9.626) |
| 부모 고졸 이하 | 0.005 (0.020) | 0.003 (0.025) | 0.001 (0.026) | -10.821 (8.522) |
| 표본 수 | 2,448 | 1,841 | 1,519 | 1,516 |

주: 1) 결과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추정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계효과이며, 연속변수(임금)인 경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치임.

2) 정규직 여부와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은 임금근로자에 한함.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4) 17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 이항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거나, 반대로 취업자, 상용직, 정규직, 임금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2015년 단년도에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현재의 노동시장 성과 지표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제4절 소 결

본 장은 청소년기 비행이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시절 비행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가족배경 등 관찰 가능한 특징이 상당히 상이하며,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이 비행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교육수준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비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 비행경험은 학력수준과 함께, 상용직 여부, 임금 등의 일자리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학교 시기의 비행경험은 20대 후반에 고졸 이하의 학력일 확률을 14.1%p 더 높이는 반면,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확률을 4.2%p,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확률을 9.8%p 더 낮추고, 취업률이나 정규직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을 5.8%p, 월평균 임금을 14.91만 원 낮춘다. 비행이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30대 후반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청소년기 비행이 30대 후반에 2년제 대졸 이상일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30대 후반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20대 후반에 미치는 영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초기 노동시장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청소년기 비행은 취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용직일 확률을 8.3%p, 정규직일 확률을 8.2%p 낮추고 월평균 임금도 16.79만 원 낮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경험한 사람이 향후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낮다면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비행이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기와 중기의 분석표본이 달라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기 노동시장 지표 분석 시 청소년기 비행은 정규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중기에는 정규직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정착할 시기의 고용의 질에 청소년기 비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상 비행의 내생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시기의 비행은 개개인의 인적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과 20대 후반 및 30대 후반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비행이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비행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의 결과를 제3장의 결과와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을 매개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 파악한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서도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 2015년 개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 그 개인의 취업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및 임금과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역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단순 상호관계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좋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과 노동패널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정(+)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비물질적 자원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을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이러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A)이 청소년의 비행(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별도로 개개인의 청소년기 비행(B)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A)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을 매개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 제시된 사회자본이 청소년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자본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중학교 시절 주변 학교친구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 등 사회인식이나 가족의 배경이 고등학교 시절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또한 제4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의 비행경험은 개개인의 최종학력과 20대 후반 및 30대 후반에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 정규직일 확률 및 임금을 낮추는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자본의 수준과 청소년의 비행은 부(-)의 관계에 있고, 청소년의 비행과 노동시장 성과도 부(-)의 관계에 있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을 매개로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적이거나 예상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청소년들의 사회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비행이 15년 또는 25년 후의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비행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매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청소년의 비행만을 제3장과 제4장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사회자본은 비행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신뢰, 공동체 의식 등 사회자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의 일면만을 보여준다. 또한 연결적 사회자본의 중요성 측면에서 어떤 일부계층의 주변 인적구성원이 지나치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학교, 주거지역, 지역사회 등의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 본받을 만하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본인의 주거지역에 관심이 많아 공공기관에 보안시찰 등을 요구하여 경찰이 저녁에 그 주거지역을 시찰한다면 그 이웃과는 교류가 없는 주변인도 그 보안시찰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물질적 자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 사회자본이라는 학문적 개념을 노동시장 연구에 도입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자본이 신뢰 유지, 규범 준수, 개인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in(2001)에 따르면 특정 사회구성원이 집중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끼리 모이려는 경향(homophily)이 존재할 때 인종 불평등과 같은 계층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망을 교류하고 규범 등을 공유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회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자본의 확충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이익을 누리고 활용할수록 커지는 특성을 가진다. 즉 현재 일부 사회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관계망에 그러한 자원이 부족한 구성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위집단 이익의 희생으로 기타 구성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은 전체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바 없다.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자본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삶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정책만이 아니라 교육정책, 지역사회정책, 심지어 직업훈련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진행 중인 교수학습법과 관련한 실험연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개인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협동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 간 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 이처럼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작은 정책들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구성원 간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의 사회자본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누군가의 편익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편익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학교에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학교 숙제를 하는 친구에게 지금 당장에는 내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사회란 기본적으로 혼자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곳이 아니다. 사회란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며

로 이들 간의 신뢰, 협력 등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환경이 제한되었거나 주변 인적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사회구성원에게는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나 공공고용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 향후 사회자본 양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7), 「개인의 직업성과에 대한 취업정보획득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213~224.
- 강현아(2007),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5, pp.145~165.
- 곽금주·김하연·윤진(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 과정간의 관계(I)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 (1), pp.145~156.
- 김경식·이현철(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 (2), pp.1~22.
- 김경식·최성보·이현철(2009),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25 (2), pp.60~83.
- 김성훈(2005), 「사회 연결망과 공식 경로를 통한 첫취업의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 『한국사회학』 39 (1), pp.53~85.
- 김영철(2010), 『인적 네트워크(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춘(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9), pp.321~331.
- 김자경·손정락(2007),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1), pp.1~19.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2014),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천기(2004), 「중등학생의 중퇴 방지를 위한 사회 자본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 (3), pp.21~39.

- 김헌수·김현실(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 의학』 40 (2), pp.279~291.
- 남궁근(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 부학연구』 13 (4), pp.297~325.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 (2), pp.219 ~241.
- 박수경·양심영(2017),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친사회적 행동, 공감능 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6), pp.142~152.
- 박영신·김의철(2010),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 회지: 사회문제』 16 (3), pp.385~422.
- 오선정(2017),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자료집』(2017. 9.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308~325.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pp.87 ~125.
- 유홍준·정태인·전은주(2014), 「한국 대졸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성 과」, 『한국인구학』 37 (2), pp.49~69.
- 윤준섭·김종관·유법재(2015), 「사회지능과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사회자 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 (6), pp.1583~ 1601.
- 이경은·주소희(2008), 「가족내외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 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 (1), pp.113~131.
- 이성식·전선현(2009),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 (2), pp.91~111.
- 이재영·공태명(2010), 「가정·학교·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 동」, 『사회과학연구』 17 (3), pp.61~82.
- 이종원(2013),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p.1~82.
- 이현철·김경식·최성보(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

- 한 중단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 (2), pp.125~147.
- 장시준(2014), 「교육은 사회자본의 형성」, *Economy* 21(7월호 커버스토리).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4>
49(접속일: 2017. 4. 5).
- 정기원·권광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 일반인
장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3 (5-2), pp.81~102.
- 정이화(2015), 「수업참여도가 낮은 동료와의 접촉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 - 학습동기, 학업흥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
소년학연구』 22 (6), pp.131~160.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pp.5
~34.
- 정해식·정홍원·구혜란·김성근·김성아·우선희(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준호(2007), 「사회자본의 직업성취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고졸 청년층
의 사회 연결망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 (2),
pp.115~137.
- _____(2010), 「학교의 사회자본에 관한 고찰: 측정도구 활용 문제를 중심
으로」, 『사회과학연구』 36 (2), pp.61~87.
- 최재용·한보영·이윤호(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
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 (1), pp.35~65.
- 최형임·문영경(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pp.189~209.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및 제18차 원자료.
_____,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9차 청년층 부가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코드북」.
_____,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 _____,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 황매향(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 (3), pp.187~203.
- 황성현(2016), 「청소년비행에서 비행친구가 선행하는가, 비행이 선행하는가?: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23 (2), pp.53~70.
- 홍태경·류준혁(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 (3), pp.113~138.
- Adler, P. S., and S. W. Kwon(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 (1), pp.17~40.
- Allgood, S., D. B. Mustard, and R. S. Warren Jr(2007), “The Impact of Youth Criminal Behavior on Adult Earnings,” *Manuscript*.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Ronald_Warren/publication/228713289_The_Impact_of_Youth_Criminal_Behavior_on_Adult_Earnings/links/09e41508ac59f1dcee000000.pdf
- Bhandari, H., and K. Yasunobu(2009), “What is Social Capital?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 (3), pp.480~510.
- Bifulco, R., J. M. Fletcher, and S. L. Ross(2011), “The Effect of Classmate Characteristics on Post-Secondary Outcomes: Evidence from the Add Health,”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3 (1), pp.25~53.
- Bifulco, R., J. M. Fletcher, S. J. Oh, and S. L. Ross(2014), “Do High School Peers Have Persistent Effects on College Attainment and Other Life Outcomes?,” *Labour Economics* 29, pp.83~90.
- Bliek, R.(2015), “Does Trust Pay Off?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Trust on Personal Income,” SSRN Working Paper.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072056>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 Westport, CT: Greenwood, pp.241~258.
- Braastz, J., and R. D. Putnam(1996), *Families, Communities, and Education in America: Exploring the Evidence*,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ED) 412637.
- Brisson, D.(2009), “Testing the Relationship of Formal Bonding, Informal Bonding, and Formal Bridging Social Capital on Key Outcomes for Families in Low-Income Neighborhoods,” *Th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6 (1), pp.167~183.
- Burt, R.(1992), *Structural Hole: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ushway, S. D.(1998), “The Impact of an Arrest on the Job Stability of Young White American Me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4), pp.454~479.
- Cingano, F., and A. Rosolia(2012), “People I Know: Job Search and Social Network,” *Journal of Labor Economics* 30 (2), pp.291~332.
- Coleman, J.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Datcher, L.(1983), “The Impact of Informal Networks on Quit Behavior,”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3), pp.491~495.
- Ellemers and Barreto(2008), Enthusiast 블로그, 「사회자본과 사회복지 실천」, <http://enthusiast96.blog.me/50087693463>(접속일: 2017. 11. 27).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Free press.
- Gomez, R., and E. Santor(2001), “Membership has Its Privileg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Neighbourhood Characteristics on the Earnings of Microfinance Borrower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4 (4), pp.943~966.
- Granovetter, M. S.(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6), pp.1360~1380.

- _____(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1, pp.201~233.
- Healey, A., M. Knapp, and D. P. Farrington(2004), “Adult Labour Market Implications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Findings from a UK Longitudinal Study”, *Applied Economics* 32 (2), pp.93~105.
- Hensvik, L., and O. N. Skans(2016), “Social Networks, Employee Selec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4), pp.825~867.
- Hirschfield, P.(2009), “Another Way Out : The Impact of Juvenile Arrests on High School Dropout,” *Sociology of Education* 82 (4), pp.368~393.
- Kmec, J. A.(2007), “Ties That Bind? Race and Networks in Job Turnover,” *Social Problems* 54 (4), pp.483~503.
- Lin, N.(2001),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in N. Lin, K. Cook, and R. S. Burt(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pp.3~29.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Maguin, E., and R. Loeber(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Crime and Justice* 20, pp.145~264.
- Marmaros, D., and B. Sacerdote(2002), “Peer and Social Networks in Job Search,” *European Economic Review* 46 (4), pp.870~879.
- Marschall, M. J., and D. Stolle(2004), “Race and the City :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Political Behavior* 26 (2), pp.125~153.
- McDonald, S.(2011), “What’s in the “Old Boys” Network? Accessing Social Capital in Gendered and Racialized Networks,” *Social Networks* 33 (4), pp.317~330.
- McNeal, JR, R. B.(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 (1), pp.117~144.

- Michalski, N., and J. Schupp(2009), "Sozialer Rohstoff: Den meisten Menschen kann man vertrauen," *Wochenbericht des DIW Berlin* 34, pp.570~579.
- Nagin, D., and J. Waldfogel(1995), "The Effect of Criminality and Conviction on the Labor Market Status of Young British Offender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5 (1), pp.109~126.
- _____(1998), "The Effect of Conviction on Income Through the Life Cycl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8 (1), pp.25~40.
- Nordstrom, O. A., and L. Steier(2015), "Social Capital : A Review of Its Dimensions and Promise for Future Family Enterpris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21 (6), pp.801~813.
- OECD Survey of Adult Skills(PIAAC), <http://www.oecd.org/skills/piaac/publicdataandanalysis/>
- OECD Stat,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 Perkins, D. D., and D. A. Long(2002), "Neighborhood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 A Multi-Level Analysis," In A. T. Fisher, C. C. Sonn, and B. J. Bishop(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291~318, New York, NY : Springer US.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s Sociology* 24 (1), pp.1~24.
-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1), pp.65~78.
- _____(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 Shuster.

- _____ (2004), "Bowling Together," *The OECD Observer* 242, pp.14~15.
- Richey(2014), 「젊은 층의 범죄전력과 노동시장 성과 : 미국자료를 이용한 매칭분석」, 『경제연구』 32 (2), pp.169~187.
- Rosenbaum, J. E., S. DeLuca, S. R. Miller, and K. Roy(1999), "Pathways into Work: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Ties," *Sociology of Education* 72 (3), pp.179~196.
- Rosenbaum, P. R., and D. B. Rubin(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1), pp.41~55.
- Rosenfeld, R., S. F. Messner, and E. P. Baumer(2001), "Social Capital and Homicide," *Social Forces* 80 (1), pp.283~309.
- Rubin, D. B.(1973), "The Use of Matched Sampling and Regression Adjustments to Remove Bias in Observational Studies," *Biometrics* 29 (1), pp.185~203.
- _____ (1974),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Treatments in Randomized and Nonrandomized Stud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5), pp.688~701.
- Sampson, R. J., and J. H. Laub(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hornberry, T.(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Advances in Criminology Theory)* pp.1~29. UK: Routledge.
- Schmutte, I. M.(2015), "Job Referral Networks and the Determination of Earnings in Local Labor Marke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3 (1), pp.1~32.
- Siegler, V.(2014), "Measuring Social Capital,"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vailable at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50905050147/http://www.ons.gov.uk/ons/rel/wellbeing/measuring-national-well-being/measuring-social-capital--july-2014/art-measuring-social-capital.html>

- Simon, C. J., and J. T. Warner(1992), "Matchmaker, Matchmaker: The Effect of Old Boy Networks on Job Match Quality, Earnings, and Tenur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3), pp.306~330.
- Slemrod, J., and P. Katuscak(2001), "Do Trust and Trustworthiness Pay Off,"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 (3), pp.621~646.
- Tanner, J., S. Davies, and B. O'Grady(1999), "Whatever Happened to Yesterday's Rebels? Longitudinal Effects of Youth Delinquency on Education and Employment," *Social Problems* 46 (2), pp.250~274.
- Thornberry, T. P., M. Moore, and R. L. Christenson(1985), "The Effect of Dropping Out of High School on Subsequent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23 (1), pp.3~18.
- Weaver, R. D.(2012), "Social Capital and Its Role in Poverty Reduction: A Canadian-Based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8 (1), pp.57~74.
- WVS Database,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부 표]

〈부표 1〉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통계

| | 평 균 |
|----------------|--------|
| 여성(비율) | 0.49 |
| 기혼자(비율) | 0.65 |
| 2~4년제 대졸자(비율) | 0.41 |
| 취업자(비율) | 0.71 |
| - 상용직(비율) | 0.55 |
| - 4대보험 가입자(비율) | 0.30 |
| - 개인소득(만 원) | 182.09 |
| 나이(세) | 43.5 |
| 가구소득(만 원) | 409.44 |

주: 1) 소득 관련 변수 및 나이의 평균은 범주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계산함.

2) 가중치 비중에 적용한 수치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 執筆陣

- 오선정(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 발행연월일 | 2017년 12월 26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 발 행 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156-9